한국일보
무료배부
—우편파업기간중—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65 1981년7월14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July 14,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1
AUG 21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P 0184

외국어교육 혁신 실현

실용위주 시청각교재 지급

전대통령, 외대방문 역설

(서울14일=연합)한국정부는 국제교류 증진과 무역량 증가에 대비, 외국어교육을 전면 재검토 강화할 예정이다. 문교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어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고려중인 방안은 국민학교 교과과정에 영어를 포함시키고 중고교의 외국어교육을 개편하며, 시청각기재를 각급학교에 공급, 산 언어를 배우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중고교 영어교사를 재교육시키는 것도 검토대상이 되었다.

한 고위당국자는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필요한 언어교육 기재를 각학교에 공급할 예정이며, 국민 학교서도 영어를 가르치도록 교사를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외국어교육 강화계획이 급피치를 올리게 된 것은 13일 전대통령이 "우리 영어교육은 우리가 배운 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 때문이다.

전대통령은 최근 동남아 5개국을 순방하면서 한국영어교육이 얼마나 절름발이 교육이며 한국 영어교사가 얼마나 질이 낮은지를 직접 느꼈다.

영어교육의 개선을 굳게 다짐한 전대통령은 14일예고 없이 한국외국어대학을 방문, 외국어교육의 현창을 돌아보았다.

전대통령은 외국어대학에서 "천연자원은 적으나 재주있고 인력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는 길은 외국어에 숙달,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한국학생들은 중·고및 대학에서 10여년간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배우나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

문교부당국자는 "국민학교서는 대화에 중점을 두고, 중학교서는 문법, 고교서는 신문·문학작품 공부에 역점을 둘 것" 이라고 밝혔다.

성인영어교육을 위해 문교부는 래디오, TV영어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수상황의 기업체, 외국과 접촉이 많은 단체 근무자에게 고급영어를 가르칠 예정이다.

국민학교의 영어교육 방침은 전 박찬현 문교장관 때에도 거론됐으나 구체화되지 못했다.

해외투자권장

$50만미만 한은 승인

(서울14일=연합)한국정부는 한국인의 해외투자에 관한 모든 제한을 풀어줄 방침이다.

동남아 5개국을 순방한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인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수출및 자원개발사업에의 투자를 조장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금지됐던 농업, 임업, 귀금속광산업, 요식업, 부동산업, 일반서비스업등의 해외진출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법」을 개정, 허가사항으로 되어있던 해외투자를 인가사항으로 바꾸어, 한국업체의 자본금 반출을 쉽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외환관리정책상 해외투자를 엄격히 제한했지만, 한국에 필요한 수출확대및 자원확보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다.

앞으로 미화 50만달러미만의 해외투자는 정부허가없이 단순히 한국은행의외환사용 승인만 받으면 된다.

한국정부는 해외투자 개발 확대책과 함께 이미 해외유학생 확대및 여행완화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군소업체 진출및 외화반출을 목적으로한 부동산업 투자등은 계속 금지시킬 방침이다.

한국정부는 해외투자 지원금으로 지난 5월말까지 300억원(미화 4,380만달러)을 책정했으나 실제투자된 것은 6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6월말까지의 공공투자를 제외한 민간투자 신청은 318건 2억3천만 달러였으나 실지로 허가된 것은 1억3천만달러에 불과했다.

교민들 불쾌감 표시

한인회분규 계속, 최이사장 사임

◇사임한 최양옥 이사장

최양옥 토론토 한인회이사장은 11일 한인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이날부로 이사장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최이사장은 "회장단의 요구조건에 따라 교민사회 평정을 기하고자 한인회 공직을 전부 사임한다" 고 말했다.

지난 3월26일 이사장에 선출된 최씨는 최근 강우석 회장·박태식 부회장으로부터 회장단과의 동시사임 요구를 들어왔다.

지난 7일 열린 이사회에서 강회장은 "우리가 사표를 낸 것은 이사장단도 한인회 분규에 대한 일단의 책임을 지고 같이 사임한다는 조건이었는데, 최이사장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한 우리는 사표를 철회한다"는 뜻으로 발언했고 이에 대해 최이사장은 "그런 조건은 금시초문이며 회장단이 이제 와서 사의를 번의하면 교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 이라고 말해 분규가 더욱 심각화하는 양상을 보였었다.

강회장은 13일 "최이사장의 사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함병섭·문가자 부이사장도 물러나야 하며 막후에서 사태를 악화시킨 김문량 이사도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장단 3명과 김이사의 사임을 강조한 강회장은 "이들이 모두 물러가고 회장단이 없어도 사태가 수습되면 그때 가서 우리는 사임하겠다"고 밝혀 분규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보였다.

한편 본사가 접촉한 일부교민들은 한인회 사태에 불쾌감을 표시, "다분히 관계자들의 감정으로 시작된 분규가 이토록 계속된다는 것에 염증을 느낀다. 내가 한인회비를 낼 때는 이렇게 싸움질하라고 낸 것은 아니었다. 차제에 차라리 한인회란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이 인사는 "신문지상에 한인회의 추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불쾌하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인사는 "그들이 무엇하는 사람들인지? 이사고 임원이고간에 모두 물러가고 이사회가 만든 정상화대책위와 임원진이 구성한 자문위원회가 합동으로 후임자들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16번연승 이시또에 KO승

(원주13일=연합)쥬니어웰터급 프로권투선수 이상호는 11일 일본의 타다시·이시또 선수를 녹아웃, 프로 전향후 16전16승 연승기록을 세웠다.

이는 이날 레프트, 라이트·스트레이를 마구 구사, 이시또의 인파이팅 접근을 막다가 5회전 1분12초에 KO시켰다.

이는 장기인 라이트, 레프트·스트레이트를 퍼붓다가 이시또의 아래턱에 라이트·어퍼컷을 강타, 그를 쓰러뜨렸다.

이 게임은 10회전, 논·타이틀 매치였다.

◇메트로·토론토경찰의 아마츄어 스포츠협회가 주최한 99년째의 연례 야유모임에서 미스 토론토로 뽑힌 이본느·로빈슨양(23)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왼쪽은 2위의 다니엘·크러프, 오른쪽은 3위 크리스티양. 이대회는 11밤 CNE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조촐한 가족음악회

한인합창단,"메씨아"도 선보여

토론토한인합창단 (지휘 박재훈)의 가족음악회가지난 11일(토) 하오8시 토론토 성 마태오연합교회(729 St·Clair Ave·W)에서 약 160명의 청중이 참가한 가운데 조촐한 음악잔치로열렸다. (<한국일보—토론토>7월2일자 참조)

음악카셑 출판기념회를 겸한 이날 연주는 한국가곡들과, 특히 올겨울 공연예정인 헨델 「메씨아」중 "주는 우리의 괴롬을 맡으셨네""주가 채찍을 맞음으로""우리는 다 양같이 헤매었네"의 3곡을 선보였다.

박재훈 지휘, 고희경 반주로 진행된 이 음악회중 송경란씨의 소프라노 독창 "그네", "이별의 노래", 남성 4중창단(고성삼, 곽일호, 배거욱, 이덕재)"주이름 찬양하라", "만일이 내게 있으면"의 특별순서도 있었다.

전택보씨 1주기 임마누엘교회서

한국 실업계의 선구자전택보씨 1주기 추도예배가 18일(토)하오8시 토론토임마누엘교회에서 열린다.

토론토에는 전씨의 동생 전택균씨, 조카사위 윤호영씨등 친척이 있다.

"인정은 강물처럼"

본보성원 교포들에 감사

=제2차 발표분=

"인정은 강물처럼 넘쳐 흐른다."

지난5월 1일, 928 Queen St·W로부터 이곳 1025 Dupont St로 확장 이전하고 이어 한달후인 6월1일자부터 일간지로 약진 발간함을 축하 격려하는 애독자, 교포업체, 교민들의 온정의 손길은 연일 끊이지 않아 실무진을 용기백배케 해주고 있다.

지난 6월9일자<한국일보—토론토> 제1차분 발표에이어 6월 월5일이후 현재까지 내방, 금품기증자는 아래와 같다.

◆물품및 화분기증자
정일송·윤호섭·오세희·

◆금일봉 희사자
이주연·정대해박사부부, 최학철·최양옥(2차)

◆본사내방인사(무순)
김철 ·봉신행·조규혁
황용현·김종조·황순일
배용빈·최양옥·최학철
오세희·김인규·이주연
정대해·최귀암·박재훈
김하서·전진동·정일송
(전런던한인회장)부부·
박찬웅·윤호섭(모찰트음악학원장)

—— 사 고 ——

발행부수 2배로 증가

무료배부방식 개선 모색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우편파업은 전국의 우편업무를 마비시켜, 주로 우편을 통한 배부방식을 취해오던 본사등 애트닉계 신문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독자·광고주에게도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읍니다.

본사는 이같은 불편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이틀분 신문을 한번에 인쇄, 식품점이나 교민회합 장소, 종교단체를 통해 무료배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은 한인계 식품점·식당에서 본지를 얻을 수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신문용지의 수급상 인쇄부수를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 없었으나 10일, 11일자부터는 발행부수를 배로 늘이고 무료배부 방식을 개선하기로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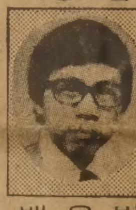
토론토판 교민소식은 파업중 주 3일만 발행됩니다.

파업이 끝나면 연재물의 연속성등을 위해 정기구독자에게는 그간 못보내드린 신문을 전부 발송할 방침입니다. 신문이 필요하신 단체는 본사에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드릴 준비가 돼 있읍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고 배전의 성원과 협조를 앙망합니다.

— 한국일보사 드림 —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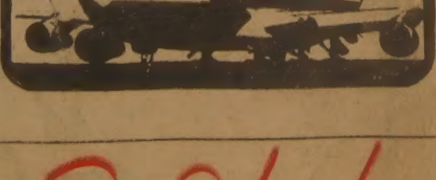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 생명교육보험
• RRSP(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 홍 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 (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 (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유 지 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M5-S

우편파업에 새 국면

의회 여름휴가도 취소

13일부터 여름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던 연방의회는 "우편파업이 협상으로 해결되거나 국회입법을통해 끝날때 까지 국회에 있겠다"고 선언한 조·클라크당수의 보수당에의해 계속열리고 있다.

여당 자유당의 반대에도 불구, 보수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타작전(연설등을 길게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작전)을 통해 자유당의 유회동의안 상정을 막고있다.

한편 연방정부대표존스톤 재정위원장은 미래의우편공사 사장 마이클·워렌씨를 협상테이블에 참가시키라는 노조측 주장을 단호히 거절하고 워렌씨도이에 동조, 협상이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

우편노조회장 페로는 워렌사장이 협상에 참가하지 않는한 더 이상 정부측과의 협상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존스톤 재정위원장은 입법을 통해 우편파업을 해결하지는 않겠다는 종전의 주장에서 누그러져 직장복귀명령법안을 지지할지도 모른다고 기자들에게 암시했다.

이에대해 78년도에 국회의 직장복귀명령에 도전, 2개월 징역살이를 했던 페로노조회장은 "법안은 파업을 막지못한다 . 우리의 조건들이 수락되지 않는한 파업은 계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근 캐나다 신문에는우편노조의 불합리한 탐욕성을 비난하는 독자투고가계속 실리고있어 국민들의우편노조 불신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데릴·시틀러 보강 세계하키 캐나다팀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국가대표팀 1차 선발에서 탈락했던 토론토· 이플리프팀 주장인 센터 대릴·시틀러가 추가로 선발됐다.

10일 캐나다하키선발위원회는 트로티의 부상으로 허약해진 센터진의 보강을 위해 베터란 시틀러 선수를 선발했다.

시틀러는 5년전 이 선수권대회중 체코와의 결승에서 결승골을 넣어 캐나다에게 우승을 안겨주었었다.

매이플리프의 보위·샤밍은 이미 스웨덴 대표 팀에 선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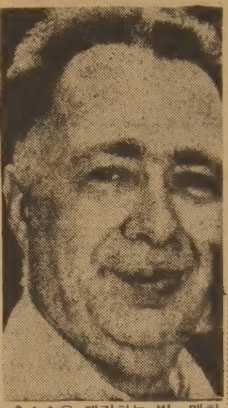
시틀러를 포함한 36명의 1차선수들은 3주간 집중훈련후 23명으로 최종선발된다(선수 앤트리 22 대기골리 1).

이번 캐나다컵쟁탈 하키선수권대회에는 캐나다, 미국, 소련, 체코, 스웨덴, 필랜드의 세계하키 최강 6국이 모여 9월1일-13일 에드몬톤, 퀘벡, 위니펙, 몬트리얼등 4개도시에서 열전을 벌인다.

(정정) 본지 10일자 2면(현지판)캐나다하키대표팀 선발기사중 현 「26개의 NHL팀」은 21개의 잘못이며 「NHL코취중 약80%」는「NHL 코취및 선수」의 착오였으므로 정정합니다.

우편파업 법정으로 비화

손해배상 소송제기



◇소송을 제기하는 빌·메처

토론토 인쇄업자 빌·메처(52)씨는 캐나다우편노조, 우정성및 의회를 상대로 우편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메처씨는 "2주간 계속된 전국적인 우편파업으로 약 9천달러의 적자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리치몬드·스트릿에서「스피리츄얼」인쇄소를 경영하는 메처씨는 소액청구재판소를 통해 3개기관에 각각 3천달러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액청구재판소(스몰·크레임스·코트)가 취급하는 한도액은 3,000 달러이다.

메처씨는 "나는 이미 사업의 50%를 잃었다. 대부분 인쇄주문이 우편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이다. 75년도 우편파업때는 세일이 75%가 떨어졌었고 종업원들도 다 놓쳤다"고 말했다.

그의 소장에는 캐나다 연방정부및 의회도 피고로 되어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533 2361

경호실장 경질 후임에 장세동장군

(서울13일=연합) 전대통령은 13일 정동호 경호실장을 현역에 복귀시키고 후임에 장세동 장군을 임명했다.

육사 16기 출신인 장장군(45)은 경호실및 수도경비사에서 근무했다.

레건 84년 재출마 결정

베이커 수석보좌관 회견서 밝혀

레건 대통령은 84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재출마 할 것이라고 백악관 수석 보좌관 제임스 베이커3세가 밝혔다.

베이커 보좌관은 레건 대통령이 재출마를 결정했으며 재출마 할경우 재당선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계최소 척추동물

1 cm짜리 물고기 발견

토론토의 왕립 온타리오박물관(ROM)의 두 과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를 발견했다. 이 고기는 이제까지 알려진 척추동물중 가장 짧은 것이다.

망둑어 종류인 이 물고기의 크기는 10전 짜리 동전의 반밖에 안되며, 몸체가 투명하다.

물고기를 발견한 리처드·윈터바텀씨와 알렌·에머리씨는 이 사실을 세계진기록을 수집 발간하는<기네스·북>에 수록토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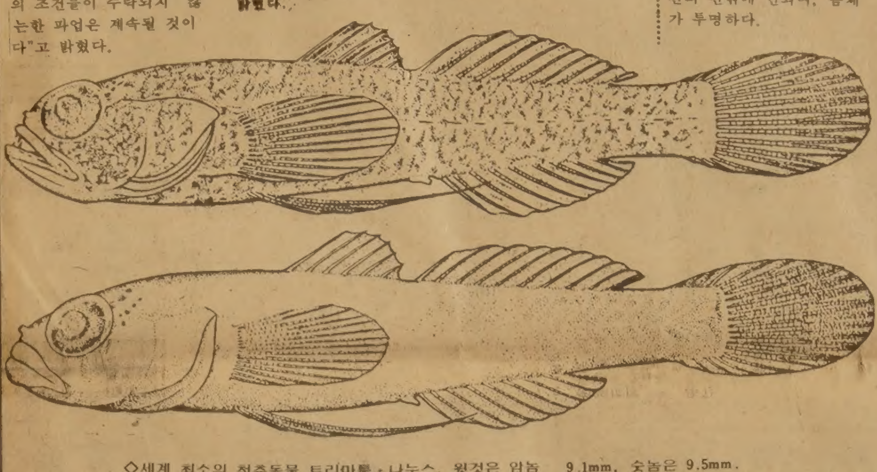
"트리마톰·나누스"라고 명명된 이 물고기는 현재까지 알려졌던 가장 작은 고기인 피그미 망둑어보다 10% 나 짧은 8미리미터 밖에 안된다.

이 망둑어는 두 과학자가 1979년 인도양 카고스·코랄 섬 부근에서 채집했던 약 40종류의 처음으로 발견된 물고기들에 섞여있었다.

"처음에 우리는 이것이 보통 있는 새끼물고기인 줄 알았다"라고 두 학자는 9일 이 물고기가 전시된 박물관에서 말했다.

우연히 현미경으로 조사해본 결과 암컷이 54개의 알을 가진 것도 발견됐다.

이 고기는 망둑어와는완전히 달라 망둑어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진화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소의 척추동물 트리마톰·나누스. 윗것은 암놈 9.1mm, 숫놈은 9.5mm.

새회장에 이석현씨 베타Y즈멘즈클럽

토론토한인베타와이즈멘즈클럽(회장 김순창)은 지난9일저녁 코리아하우스에서 8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1년인 회장에 전통대로 이석현부회장을, 부회장에 홍승규씨를 각각 선출, 총무및 각 위원장등 임원선정은 회장단에 일임했다.

직전회장인 김순창씨는 규정대로 임원으로 남으며 회살림을 꾸리는 임원회에 참석한다.

와이즈맨 골프대회 캐슬모어골프장서

토론토한인와이즈맨즈알파클럽(회장 차선경)는 오는 1일(토) 상오11시 캐슬모어 골프장에서 골프대회를 가진다.

참가자격은 와이즈 맨들과 초청자에 한하며, 만찬회를 겸하고, 많은 트로피와 부상이 마련되었다.

박종훈 수훈 한미야구전서

(서울11일=연합) 11일 속개된 제2회 한·미대학야구 선수권대회 1차전에서 한국은 스러거(강타자) 박종훈선수(고려대)의 홈런으로 미국을 이겨 서전을 장식했다.

전날 4:4로 비긴 양팀은 폭우로 게임을 중단했었다.

이어 벌어진 제2차전에서 이날의 히어로 박선수는 다시 9회초 투런 홈런을 때려 6:6의 팽팽한 접전을 타개 한국팀에 8:6의 승리를 안겨줬다. 이로써 한국팀은 시리즈 2연승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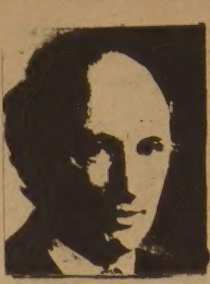
이날 2차전에서는 양팀 모두 7명의 투수가 나와 (미국3 한국4) 장장 3시간 40분의 접전을 벌였다.

이 한·미대학 야구 대회는 금년도가 두번째로서 작년도에는 미국이 6전4승2패로 시리즈를 이겼다. 이 경기는 7전4선승제이다.

한편 금년도 한국대표야구팀이 8월중 캐나다 에서 열리는 세계야구 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한국의 아마츄어 야구팀은 세계 톱·그라스 수준이다.

미국, 빈곤국원조 거절

트루도·레이건 정상회담



◇트루도 수상

▲레건대통령

우편파업이 캐나다 국내를 뒤흔드는 동안 트루도 수상은 10일 워싱톤을 방문, 레이건 미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레이건대통령은 트루도수상이 주장하는 후진국 경제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직접 원조방법에 대해 "우리도 가난했었다.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 노력과 자신 여하에 따라 발전할 수 있다"면서 "우리 선진국들은 발전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나를 알려주고, 그들 스스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한 고위관리는 전했다.

트루도 수상은 오래전부터 세계경제 발전과 평화를 위해 부유한 선진국들은 빈곤한 후진국들에게 무상원조를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공존하지 않으면 후진국들은 폭력을 쓰는 사태가 초래될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같은 부유국과 빈곤국의 공존을 위한 대화는 보통 남북대화(빈곤국은 주로 남반구, 부유국은 주로 북반구에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라고 불리운다.

양국수뇌는 이밖에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오타와에서 열리는 서방7국 경제정상회담의 의제에 관해 토의했다. 캐나다를 비롯,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및 이태리의 행정수반이 참가하는 연례적인 이 회의에서 트루도는 주빈이 된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은 캐나다의 에너지정책이 미국기업에게 차별대우하고 있다는등 불편한 캐나다·미국 양국관계에 대해 불평했으나 트루도수상은 "우리는 서로 독립국이다. 우리 각자의 정책은 서로간에 다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면서 현재 캐나다에 투자하는 외국인중 80%가 미국인이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중 캐네디안은 불과 15%라고 반격을 가했다.

이번 트루도의 경우처럼 선진국에서는 보통 수상이나 대통령이 외유를 해도 후진국처럼 그렇게 요란스럽지가 않다.

무역관 이전 20 퀸·웨스트로

토론토의 한국무역관(관장 조성호)은 오는 25일시내 베이×퀸·스트릿의 이튼센터(Cadillac Faiview Tower, 20 Queen St.W.)로 이전한다.

코트라는 현건물(2 Bloor St. E.)에서 76년4월1일부터 4년여 동안 집무해 왔으나 임대연장이 안되어런 ·스트리으로 옮긴다.

폭포·돌고래쇼구경 한맘노인회 소풍

토론토한인성당의 한맘노인회는 8월1일(토)상오8시30분 출발, 나이아가라 소풍관광을 떠난다. 관광은 폭포및 동물서커스 구경, 회비 14달러.

교 민 동 정

◆고종옥(신부,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주임)=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휴가-몬트리얼등 수도원을 찾아가 조용히 묵상·독서·집필등으로 알찬 개인시간을 메우고 있다.

고신부 휴가중에는 로마유학중 방학을 이용, 토론토 방문중인 작곡가 이종찬 신부가 대리로 성무를 담당한다.

◆조성호(토론토 무역관장)=지난 30일 토론토무역관 개관10주년 기념 리셉션을 성대히 가졌다. 푸짐한 파티에 각계인사를 초청, 패도·슬라이드를 곁들인 브리핑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백용빈(썬·라이프 보험회사 근무)=지난 가을 수술후 장기정양을 마치고,본격적 근무가 시작된 이래 다시금 본업(?)인 회의·행사등의 사회일 맡아보는 빈도가 잦아 명사회자로서의 기지와 익살이 한층 무르익어 일익(日益) 성장와사회계(司숲界)루랑아(?)임을 과시!

최근만해도 김종욱씨 장남 결혼및 이축길씨 장남결혼 피로연의 사회를 연발로 맡아, 그 저력을 유감 없이 발휘해 박수갈채의 총아가 됐다

◆서정길=화랑태권도장을 개장, 지난10일밤 개업파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사범이 가르친 학생들은 멋진 태권시범을 보였다. 파티에는 윤여화, 전태균, 강화연, 김춘탁, 장순채, 김병권씨등 교민사회 인사와 정기태, 박종수, 손명수, 홍성인(런던), 박주삼 사범등 태권도계 인사들이 참석, 화랑도장의 개장을 축하했다.

신랑 : 서만수군 (서재근씨 3남)
신부 : 김경화양 (김영춘씨 2녀)
때 : 7월25일(토) 정오
곳 : 새한장로교회 (105 윌슨·애비뉴 × 애비뉴·로드)
주례 : 김상호 목사
피로연 : 교회 친교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㉘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쿠니와 아노틸릭은흥분이 극도에 달했다.

아노틸릭은 무릎까지 올라오는 강속으로 뛰어들어와서 우리가 내리는것을도와주고 아직도 식지않은고기를 칼로 떼어가지고 미친듯이 삼켜버렸다.

오랫동안 그가 처음으로 먹어보는 싱싱한 고기였고 아노틸릭은 오랙 호숫가에서 굶주렸던 날들을 아직도 잊지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쿠니는 아노틸릭 뒤에바로서 있었다.

나는 이 작은 소녀가 한손에 칼을들고 다른한손에는 사슴의 뒷 다리에서 떼어낸 큰 고기덩이를 들고 그 작은입에 쑤셔넣고있는 모습이 마치 늙은 어느클럽 회원이 굉장한 식사를 마친후에 하는것 처럼 트림을 하는광경을 어떻게표사를 해야좋을지 몰랐다.

한스는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그는 웃기도하며 사슴을잡은 기쁨 때문인지 또는 신선한 음식을 먹는다는 기대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미소는 별로 표정이없는 그런 미소였다.

프란츠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릴때 미소를 지으며 쿠니한테 불을 지피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마치 혈관을 통해서 새로운피가 흐르듯이 열광적인 새로운 기분과 신선한 생명을 그곳에서 느낄수 있었다. 전혀 헤아릴수없는 감정에 휘말려 버렸고 내가 한번도그런 경험을 해보지못한 살아있는 생기도는 감정을 맛보았다.

불이 지펴졌고 사슴허바닥이 들어있는 냄비가 막 끓기시작 했을때 요란한개 짖는 소리에 또 밖으로 뛰어나가 보았다. 곧장 반대편 강둑을 바라보았더니 좀전에 사슴을잡던 바로 그 지점에 방금 도착한 암사슴 떼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길게 늘어서 있었다.

이번에는 한스가 총을들고나가 탄창을 비울때 까지 한바탕 총질을 하고싶은것을 억지로 참기도 했지만 아무도 총을쏘지 않았다.

사슴들은 빤히 보이는우리의 오두막집을 개의하지않고 강속으로 뛰어 들었다. 무거운 몸집에도 불구하고 가뿐하게 뜨고 힘있게 헤엄을 쳐서 곧 우리마당 앞으로 밀려왔다.

개들은 미친듯이 짖어댔고 얼은땅에 박아놓은 말뚝에 매어논 끈을 끊어버리려고 소란을 피웠다.

사슴은 개와 우리들에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우리의 집을 지나가자 곧 합쳐졌다.

가축 농장에서나는 강한 냄새가 우리의코를 찌르며 그들은 서서히 산등성이너머로 지나가 버렸다.

한시간 이내에 엄청난사슴을 보아서인지 온세상이 사슴들로 꽉찬 느낌이었다. 그러나 아직 그게전부가아니었다. 그날 오후에 프란쯔는 그의 썰매에 나를 태우고 고스트힐(귀신이나오는 산)로 가는 얼음이 녹아서 질퍽이는 길을달렸다.

그날온도는 상당히 올라가서 화씨100에 가까 웠고 우리는 얇은 바지와 짧은 셔츠만 입고 있었다.

물은 얼음위로 깊게 잠겨 있었고 썰매는 육지에서 달린다기보다 물위에뜬 배와 다를바가 없었다.

약 한시간을 달려서 만의 북쪽에 닿자 개들을 묶어놓고 남쪽을향한 좀 느슨한 산등성이로 올라가보았다. 우리 밑으로 윈디베이가 내려다 보이고 반대편 너머로 고스트힐의 여러재곡이 흘러 내렸다.

자라나는 식물들은 여름철이되면 그곳을 뒤덮을미묘한 새팔들이 아직 하나도 나타나 있지않고 돌연한 계절의 바뀜에 보조를 맞추지 못해서 다만회색의 단조로운 풍경 그대로였다. 녹는 얼음의 표면은 거무축축 했으나 수천개의 작은 끌짜기와 웅덩이나 또는 강 가장자리는 바람에 불려오는 하얀눈 때문에구분할 수가 없었다.

산은 바위로 덮아졌고 목은지 오래된 이끼로 덮여있어 암갈색인 데다가산밑에는 난쟁이 전나무들이 새까맣게 듬성듬성 보였다.

북쪽으로는 작은 냇물과 웅덩이가 흰눈으로 덮여잘 보이지 않는 벌판이 낮게 보이고 다시 새팔이없이납덩이같은 볼모지가 지평선으로 내닫고 있었다.

산위에서 이 새팔이없는 을씨년스러운 광경을 내려다 보면서 사슴이 오기를 기다렸다.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않아도 되었다.

프란쯔가 내팔을잡고 멀리 남쪽 작은 산들의 오목한 비탈을 가리키는곳을바라보니 움직이는 한 선을 식별할수 있었다. 비탈은 만쪽으로 완만하게 경사가 졌고, 마치 수없는 작은바위들이 갑자기 산에서솟아나와 천천히 얼음위로 굴러내리는것 같았다. 햇볕이 반짝여서 잘 못본것이아닌가 해서 조심해서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그천천히 움직이는 떼는 물가까지 가서는 만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나는 작은 점들을 세어보려고 해봤다. 10, 50, 100, 300, 더 셀수가 없어 포기해 버렸다.

사슴은 한덩어리로 혹은 열으로 꼬은 밧줄형으로또 꾸불꾸불 끊겨진 행렬로얼음위로 나와서 수마일 떨어진 북쪽의 강둑으로 움직여가고 있었다.

(계속)

사 원 모 집
(BAKER MANAGER TRAINEE)

모집인원 : 약 간 명
자 격 : 제과(Bakery)관계 종사할수 있는 21세 이상의 남녀
년 봉 : 만8천불(이익수당40%)
훈 련 : 4 주이상
SECURITY DEPOSIT : 만불 이상
장 소 : London, Brampton, Mississauaga, Aurora, Toronto, Sudbury, Ottawa, Vancouver
문 의 처 : Bread-Man Ltd.
240 Humberline Dr. Rexdale, Ont. M9W 5X1
전 화 : 416-675-8930(MR. 오)

BREAD-MAN LTD.

大中華藥材行

건강관리에
녹용과 인삼을
中國良藥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onto
(Spadina와 Dundas북동 코너)
P. O. Box #5181 Station "A" Toronto, Ont.
◉ 매주 수요일은 휴업
영업시간 :
오전11시~오후8시
전화 977-8858~9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韓全한新聞

全國땅값 9.6% 올라

한국鑑定院서調査 작년4월~금년4월 40개都市 203개邑 221개面 대상

都市가 邑面지역 앞질러

都賣物價上昇率의 절반… 地價 安定勢

都市10·6% 邑面9·1%

전국 땅값이 최근 1년사이에 평균 9·6%가 올랐다. 韓國鑑定院이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4월1일까지 1년간 전국 40개市 2백3개邑, 2백21개面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도시지역 토지싯가표」에 따르면 40개市의 종합지가 상승률이 10·6%, 邑面지역이 9·1%가 올라 市街지역 땅값상승률이 邑面지역을 앞지르고 있으며 전국도시 지역 지가는 평균 9·6%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지가상승률은 같은기간중 도매물가상승률 21·8%의 절반에도 못미쳐 지가가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商街지역(坪當)
서울明洞 1천7백만원
釜山昌善洞 천3백만원
大邱東城1街 8백만원

住宅지역
서울新門路1街 百만원
釜山寶水洞1街 80만원
光州東區大義洞 70만원

工場지역
釜山影島蓬萊洞 60만원
서울永登浦3街 35만원
京畿君子面 20·9%내려

◇都市지역地價變動率(단위%)

	40개市지역(16大都市)	邑 面	總平均
商業지역	13·7 (12·5)	14·8	14·1
住宅지역	8·8 (8·9)	8·1	8·3
工場지역	7·4 (4·6)	12·7	9·2
종합	10·6 (10·4)	9·1	9·6

전국 땅값을 용도별로 보면 市급지역 상업지대가 13·7%, 주택지대가 8·8%, 공장지대가 7·4%가 각각 올랐고 邑面지역은 상업지대가 14·8%, 주택지대가 8·1%, 공장지대가 12·7%가 각각 오른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釜山 大邱 光州 大田 仁川등 전국 6대도시의 상업지역 땅값을 보면 서울明洞이 지난해 평당 1천5백만원에서 올해 1천7백만원으로 13·3%가 올라 가장 비싼 시세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釜山市中區昌善洞 2街가 지난해 1천2백만원서 1천3백만원으로 8·3%, 大邱市東城路1街와 光州市忠壯路1街가 똑같이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12·5%가 올랐다.

또 주택지대 최고지가는 서울鍾路區新門路1街 및 2街가 평당8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25%, 釜山市寶水洞1街가 80만원에서 85만원으로 6·3%, 光州市東區大義洞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6·7%, 大田市中區銀杏洞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가 각각 상승했다.

공장지역 최고지가는 釜山市影島區蓬萊洞1街가 평당 45만원서 60만원으로 33·3%, 서울永登浦區永登浦洞3街가 35만원서 40만원으로 14·3%, 大田市東區大東洞의 공장지대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4·3%가 각각 올랐다.

한편 부동산거래의 침체와 개발부진등으로 京畿道始興郡君子面君子里 正往里 竹栗里 去毛里일대는 지난해 보다 평균 20·9%, 全南長興郡長興邑岐陽里 상업지대 땅값은 16·7%, 慶北善山郡善山邑莞田洞 東部洞 里門洞 花園洞일대는 5·4%가 각각 떨어진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토지싯가는 한국감정원이 토지감정 참고자료로 쓰기위해 조사한것으로 올해 4월1일 현재의 대체적인 가격이어서 지상건물및 토지의 이용상태는 고려되지 않은것이다.

南總理에 歸國人事 아세안巡訪 關係들

南悳祐국무총리는 10일하오 국무회의에서 全대통령의 아세안巡訪에 수행했던 申秉鉉부총리등 관계 국무위원들의 귀국인사를 받고 노고가 많았다고 치하한 다음 『대통령의 순방기간중 각국과 협의된 사항에 대해 소관부처들은 구체적으로 협의사항을 발전시켜나가라』고 지시했다.

南총리는 또 각국과의 공동성명에서 밝혀진대로 협력증진방안을 강화키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갖도록 아울러 시달했다.

國會召集안할듯 民正院內對策委

民正黨은 11일상오중앙당사에서 총무단과 국회各常任위원장들이 참석하는 院內對策委를 열고 제108회임시국회 소집문제와 의원외교활동방안등을 협의한다.

그러나 임시회는 현재로서는 다른 안건이 없어 소집할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레이건、「道德外交」탈피

"人權문제 간섭없이 武器등 판매"

世界문제 現實그대로 處理

【워싱턴9日AP=聯合】레이건 미행정부는 9일 인권문제와 무기판매를 결부시킨 카터전 행정부의 도덕외교로 초래된 안보면에서의 對蘇열세를 만회하기위해 동맹국의 인권상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않고 재래식무기를 판매할것을 선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고위관리는 향후 동맹국에대한 무기판매에있어서 인권문제가 1차적 고려대상에서 제외될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견해로의 복귀에지나지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은 미국이 향후 세계정치에 대해 『우리의 희망에서가 아니라 있는 현실을 그대로』 세계문제를 다뤄나갈것임을 밝혔는데 이는 소련의 대규모무기공급에 맞서 카터전행정부가 도덕외교를 통해 개해온 「일방적인 자제」를 포기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관리는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이 새로운 동서무기 경쟁을 유발할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부인하고 미국의 비행무기판매는 현재수준인 연간 1백40~1백50억달러선을 유지하는것이라고 전망했다.

카터전행정부는 의회의 지원하에 인권상황이 좋지않은 동맹국에대해 무기판매를 제한하는 한편 소련과의 무기공급 감축협상을 전개해왔는데 레이건행정부는 이 두가지 정책을 모두 방기한것이다.

무기판매를 미세계전략및 외교정책의 본질적요소로 규정한 백악관성명은 무기판매의 목적에 대해 ▲동맹국의 방위증강을 통해 침략억제 ▲대외위협에대한 미군의 군사력개선 ▲미군해외주둔지원 ▲동맹국에대한지원태세강조 ▲동맹국의 안정유도 ▲미방위생산증강을 열거했다.

柳駐美大使 부임

【워싱턴9日=聯合】柳炳賢신임주미대사가 9일하오 워싱턴에 부임했다.

柳대사는 공항에서가진 짧막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간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정착된 한미간의 우호적분위기를 토대로 對美안보·경제및 문화적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항에는 수백명의 재미동포들이 출영, 태극기를 흔들며 柳대사의 부임을 축하했으며 마이클·애머코스트 미국무성 동아·태평양담당부차관보, 리처드·워커 신임駐韓미대사, 로버트·리치국무성 한국과장등이 출영했다.

日外務省 事務次官 前駐韓大使 스노베

【東京10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다카시마(高島)외무성 사무차관의 사표를수리하고 그후임에 스노베(須之部) 前駐韓일본대사를 임명했다.

홀브루크、現代그룹 顧問취임

지난9일 來韓

리처드·홀브루크前미국무성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차관보가 10일상오 現代建設을방문, 鄭周永회장과 現代그룹의 사업계획및 미국시장 진출방안 문제등을 협의했다.

東아시아문제 전문가인 홀브루크씨는 지난1일 現代그룹의 고문으로 취임했다.

지난9일 내한한 홀브루크씨는 10일하오 現代重工業및 現代자동차등의 공장을 돌아보기위해 蔚山으로 떠났으며 12일귀국한다. (사진)

아세안協力 구체적 作業착수

관련部處 政府·民間베이스로 經協2元化

정부는 全대통령이 아세안 5개국을 순방하면서 각국정부수뇌들과 채택한 공동성명내용을 구체화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全대통령을수행한 申秉鉉부총리、朴鳳煥동자부장관、金善吉상공부차관、李圭孝건설부차관등 경제부처 장차관들은 10일 이번 순방의 성과를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정부장은 물론 민간베이스의경제협력증진을 위해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중이라고말했다.

아세안經濟人들 10월까지 대거來韓

19일 印尼公共事業相·月末 泰商務장관

8월 말聯購買사절·比 새마을視察團도

또한 정부는 일차적으로 오는19일 내한하는 인도네시아의 푸르노모시디·하디시로 公共事業相과 이달말께 방한할 태국의 추환리크파이상무성장관을 맞아 건설협력및 통상증진방안을 협의키로 하고 이어 8월중에 방한할 말레이지아의 구매사절단및 필리핀의 새마을시찰단및 통상사절단을 맞을준비도 아울러 벌이고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제조정상도 초청키로했다.

申秉鉉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건설진출과 공장건설및 중소기업부문의 對아세안진출에 주력할 계획이며 앞으로의 경제협력추진은 효율화를위해 정부、민간 베이스의 2元化로 각기 카운터 파트조정등 협력관계를 추진토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申부총리는 아세안각국들이 비슷한 開發途上國이지만 공업면에서 다소 앞선 한국과의 합작투자와 기술협력이 현재로서 그들의 경제발전에 보다 유익하다고보고 공통적으로 한국의 합작투자진출과 기술협력을 희망했으며 그들이 보유한 자원을 한국의 기술과 합작투자로 半製品으로 가공、수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등으로부터 석유원목등 원자재에대한 우선공급의 약속을 얻었으며 합작투자등 진출기업보호를 위한 투자보장협정체계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추진에대해서도 아세안 각국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고말했다.

朴鳳煥동자부장관은 아세안 5개국이 한결같이 자원개발에 기술제휴와 공동개발을 요청해 왔다고 밝히고 각국별로 자원협력위원회등을 설치、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장단기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朴장관은 아세안 각국이 우리나라의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산업기술을 도입、자국의자원개발과 경제성장을 이룩하기위해 다양한 경협제의를 해 왔다고 말했다.

朴장관은▲인도네시아와 LNG사업、마두라해역 유전개발 원유의안정적공급、석탄공동개발사업을▲말레이지아와 주석공동개발、원유의 안정적공급을▲태국과 주석및 동광석개발에따른 합작및 기술협력을 ▲필리핀과 동광석개발을 ▲싱가포르와는 동남아시아의 자원개발에관한 정보교환등 경제협력을 해나가기로 원칙적인 합의를보았다고 말했다.

金善吉상공부차관은 지난 80년중 우리나라의 아세안5개국에 대한 수출고는 전체의 6·6%선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무역거래가더욱 늘어날것이라고 전망했다.

金차관은 지금까지 이들국가에대한 수출입방식이「자원개발수입」과 「단순상품수출」이란 고식적인 패턴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작등으로통한 플랜트수출、플랜트수출을통한 원부자재및 기술제공、시설수출로 전환할수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한다.

李圭孝건설부차관은 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지아 정부로부터 우리나라건설업체의 진출、또는 현지업체와의 합작、법인설립요청을 받았으며 앞으로 민간베이스에 의한 자연스런 건설협력관계를 유도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말했다.

李차관은 특히 이번 全대통령의 아세안 5개국 순방을계기로 그동안 미결상태에있던 건설공사의 계약문제가해결되어 現代建設이 싱가포르에서1억2백만달러규모의매립공사를 受注한 것을 비롯、국내업체들이 4억달러규모의 신규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양국간의건설협회를중심으로한 민간건설협력문제를 협의하기위해 인도네시아의 공공성장관、싱가포르국개발성장관등이 방한초청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核武器적재 美艦 日本寄港

「事前협의」對象 제외

日時事通信보도

【東京10日=宋孝彬특파원】핵병기를 적재한 美함정의 일본기항과 영해통과는 美·日안보조약의 사전협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미국정부의견해를 밝힌 공식문서를 時事통신 워싱턴지국이 입수했다고 9일 일본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문서는 58년10월23일 대니손美해군작전부차장으로부터 국방차관보에 보내진 비밀각서로 美함정의 일본영해통과나 일본항구의 기항은 핵적재여부에 관계없이 과거와같이 앞으로도 계속 협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다고 보도됐다.

이문서는 58년9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덜레스美국무장관과 후지야마(藤山)일본외상간의 회담이 『만일 일본이 미국의 작전기지로 사용될경우 미국은 일본과 협의할 것이지만 단순한 보급기지로 사용될 경우에는 현재대로 협의없이 수행한다』고 합의한 점을 지적, 핵함정의 기항문제가 사전협의의 대상에서 제외됐음을 밝혔다.

民正政策硏 이사장 黃炳晙의원등 內定

民正黨은 신설되는 정책연구소이사장에 黃炳晙의원, 부이사장에 崔相業의원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民正、經濟5년計劃 修正案 확정

農村개발등 4項 力點

民正黨은 10일하오 중앙당사에서 政策委의장단 회의를 열고 제5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에 대한 黨의修正案을 확정했다.

民正黨은 사회복지 실현이란 黨의 指標와 같은 방향으로 수정키 위해 ▲농어촌근대화▲中小企業육성▲사회복지 확정▲도시인구 분산등 4가지에 力點을 두는 방향으로 黨案을 마련했다.

李鍾南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후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多目的댐、水利시설、농업用水개발등에 적극투자、食糧의 自給自足 단계까지 정부에서 적극지원하는한편 중소기업 근로자가 日本의경우 70%、先進국가에서도 大企業근로자보다 높은 비율인데 반해 우리나라의경우 50%도 되지않는 점을 감안、中小기업에 稅制및 금융지원으로 고용증대를 꾀할수있도록 했다고밝혔다.

李의장은 또 사회복지정책으로서 4급공무원의 봉급을 生活級으로 인상시키고 低賃金 근로자들에게도 適正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줘 人口密度가 세계3위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하도록 건의키로했는데 특히 도시들의 인구分散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民正黨은 이날 확정된 黨의 최종안을 내주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社会漫評

地平線

필라델피아는 국민학교 학생도 알만한 미국독립의 관광名所다. 대륙의회가 열려 독립을 선언했던 인디펜던스·홀(獨立館)、독립을 알리는 소리를 울렸던 자유의 종은 사진만으로도 눈에 익다. 잘 가꾸어진 유적들 돌아보노라면, 2백년전의 독립선언이 되살아 오는 듯한 감회가 없지 않으나, 그 독립공원에서 「발견」한 것이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관광안내 센터 앞에 세워진 안내판이다. 어느 관광지에나 안내판이야 있게 마련이지만, 이것은 앞못 보는 이를 위한 모형이다. 손으로 짚어 보면, 인디펜던스·홀이 어디쯤 있으리란 짐작이 갈뿐아니라, 한 가운데 종탑이 있는 건물모양까지 알 수가 있게 되어있다. 설명문은 물론 點字. 장애자를 위한 배려가 이처럼 세심하구나 싶었다. ▼필라델피아의 관광안내판을 다시 생각나게 한 것은 미국의 장애자 9명이, 지난 4일 높이 4천3백92m인 레니어山(워싱턴州)을 정복했다는 보도였다. (9日字 日刊스포츠11면). 북미주 제3의 고봉인 이산은 지난달 21일 16명의 등반대원을 氷壁밑에 깔아 죽인 「魔의 山」. 그 비보속에 장애자 등반대가 苦行 4일만에 정상을 밟은 것이다. ▼「魔의 山」을 정복한 이들 등반대는 맹인 7명, 농아자2명, 義足의 보행장애자와 간질병환자 각1명의 11명. 이들중 단2명을 빼고는 모두가 정상에섰다. 눈사태와 氷壁을 이겨낸 이들의 용기는 「신체장애자의 해」 최대의 「壯擧」라고 외신은 평가한다. ▼그 기사에 보면, 앞못보는 이들이 의지했던 것은 點字지도다. ▼지난4월 「장애자의 날」을 앞두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 이야기가 무성했었다. 서울시가 계획한 것으로는 맹인용 동물원이 있었다. 실물크기 동물모형을 만들어, 손으로 만져 보게 하면, 그 울음소리를 녹음테이프로 들려준다는것. 또 새소리를 내는 건널목 교통신호계획도 그럴듯했다. ▼이들중 맹인용 동물원은 아직 시일이 걸리겠지만, 새소리 교통신호는 이미 서울시내 8곳에 선을 보였다. 所要에 비하면 아직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겠으나, 건널목 새소리를 들으면 흐뭇한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런 건널목에는, 몇 10m 앞에서도 보이게, 커다란 간판이 높다랗게 걸려있다. 『맹인용 신호』!. 이 간판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장애자를 위한 우리네 편의 시설은 아직도 「상징적」일뿐 아니라, 너무나 전시적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06
은: 온스당 US 8.21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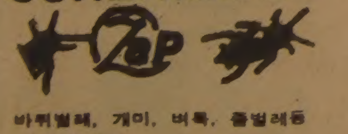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서울한의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 10여회 수상.
*진료과목: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왕진함)
주소: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Kipling-Dixon)
한의사 김장석
☎: 247-9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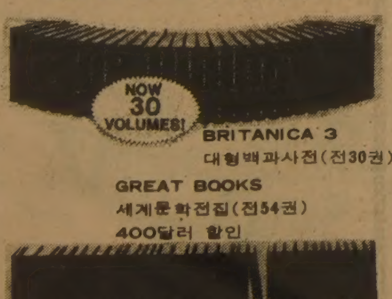
KOREAN VILLAGE
레스트랑
COOK 구함
628 BLOOR ST. W.
☎: 536-0290

SUREKI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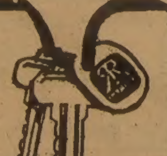
바퀴벌레, 개미, 벼룩, 좀벌레등
각종벌레.
Powder or Spray적은비용. 사용
간편. 사람에게무해. 100% 효과보장.
각 한국식품 판매처 또는 Ont. 전역
종합 Retail store경영하시는분 주문
환영.
☎: 255-6849, 255-0713

BRITANNICA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용목배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536-9082(B), 245-7522(R)

각종 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F.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FURS
Paul Magder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밍크모,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영업시간
: MON. TUES. WED. SAT. 9:30-6:00
THURS. FRI. 9:30-9:00
●신품: $99이상 ●중고품: $100이상
MRS. PARK
202 SPADINA AVE. ☎: 363-6077

英人種폭동 게릴라戰 양상

맨체스터市 千여暴徒 亂動

경찰서 襲擊·상점掠奪

軍事戰略 사용…組織化

10여명 負傷·46명逮捕

【맨체스터9日UPI=聯合】 런던교외로까지 확산된 영국의 인종폭동은 9일 게릴라전양상을 띠기 시작, 공업중심지 맨체스터에서는 연3일째 약1천여명의 흑백인폭도들이 일종의 군사전략하에 경찰서를 습격하고 약1백50개의 상점들을 약탈했다.

약1천명의 폭도들은 『인종폭동이 영국의 모든가치를 위협하고있다』는 대처수상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날새벽 『죽여라 죽여!』등의구호를 외치며 영국제2의 대도시인 맨체스터의 경찰서를습격했으며 일부는 전세버스를동원, 『조직적인』상점약탈행위를 자행했다.

제임즈·앤더튼 맨체스터경찰서장은 기자회견을통해『폭동은 잘 조직돼있었으며 일종의 군사전략까지 사용된게릴라전의 양상을 띠었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은 1천여명의 폭도들이 전세버스까지 동원, 맨체스터경찰서를 습격하고 상점·공공건물·차고및 기타 전물들을 닥치는대로 부수고 방화하는 한편 경찰관·경찰차량·승용차·앰뷸런스등에 화염병과 돌들을 던졌다고 전했다.

이날 폭동진압을위해 약7백명의 경찰이 동원됐으나 사태를 완전히 진정시키지는 못했으며 적어도 경찰관10명이 부상하고 46명의폭도들이 체포됐다.

◇波항공사罷業에 난감한표정의 여행자 폴란드국영 로트항공사소속 勞組가 9일 東歐圈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4시간동안의 경고 파업을 단행함에 따라 기능이 마비된 바르샤바의 오케치에공항. 한 여행자가 짐을옆에 놓은채 勞組가 붙인 파업 게시문 앞에 난감한 표정으로 서있다. 【바르샤바7日AP전송=聯合】

美徵兵制부활 검토

85년까지 軍事力10% 增強

人力硏究委 정책立案서

【워싱턴9日UPI=聯合】 레이건 미행정부는 지원병으로만 병력을 충원하기로 공약했음에도 불구, 향후 4년간 군사력을 10%증강시키기위해 지난 73년에 폐지됐던 징병제 부활방안을 검토하기로했다고 국방성의 한 고위관리가 9일 밝혔다.

징병제부활방안은 와인버거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8일 발족된 인력연구위원회에서 장래의 인력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검토될것이라고 이관리는 말했다.

이 관리는 이날 뉴스·브리핑을 통해 레이건 행정부가 전략목표달성을 위해 오는85년까지 2백10만명의 현병력을 2백30만명수준으로 증원해야 할것으로 추산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백악관은 인력연구위원회가 지원병들의 복무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의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한 백악관관리는 이 연구위원회가 징병제도 부활을검토하지 않을것이라는 뜻으로 이말을 해석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지는 국방성소식통을 인용, 이날 미육군이 와인버거장관에 보낸 비밀보고서에서 현재와같은 지원제하에서도 소요병력 충원이 가능할지에 회의를표시했다고 전하면서 이 보고서는 징병제의 부활을 건의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징병제의 재실시를 기대하고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4百年 참아온「숨겨진불씨」

英폭동, 리버풀·맨체스터·런던까지 擴散

黑人에의 社會냉대 原因

불황겹쳐 失業者도 急增

警察의 고압적 진압자세·일부"추방운운"등 부채질

인사이드

영국의 인종폭동은 최근수년간 잔혈적으로 터졌다. 지난주 리버풀에서 시작돼 런던 맨체스터로 비화된 인종폭동은 과거의 어느때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고있다. 폭동의규모나 강도가거세고 게릴라전 양상까지 띠어간다. 폭동의 회오리는 전영국으로 번질 조짐이다. 오랫동안 두터운껍질안에 숨겨온 폭동의 불씨가 경제침체의 때를 만나 표피를 벗어나고있는 것이다.

폭동의 원인을 단순하게 끄집어 넘길수는 없다. 우선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는 영국경제를들수있다. 불황은 실업을 낳는다. 그다음으로 점차 강화되고있는 경찰의고압적폭동진압 자세를 꼽을수있다.

거기에 세계적 추세의 하나인 청소년들의 폭력화현상과 사회적방임을 원인으로 추가할수도 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것은 유색인종에 대한 누적된 사회적편견이다. 16세기초 영국에 이주하기 시작한 흑인들은 자의에서 이주한것이 아니었다. 영국 백인에의한 강제이주였다. 폭동의 주동세력인 흑인청소년들은 사회적 편견속에 4세기를참아온 이주자들의 후손이다.

폭동은 가장 실업률이 높은 북서부 항구도시 리버풀에서 비롯했다. 지난79년5월 취임한 대처수상은 서구선진국중 가장 침체된 영국의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공공지출의 삭감과 시기에 맞지않는 금융정책은 실업률증가를 부채질하는 역효과를 냈다. 집권2년사이 실업률은 거의 2배가 늘어난 11%에 달했다. 이수치는 개발도상국의 실업률보다 훨씬 웃도는 것이다.

리버풀의 실업률은 더욱심각하다. 17%에 이른다. 특히 도시 중심부거주 청소년의경우는 40%로 두명중 한명이 일자리없는 상태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영국경찰은 경찰「화내지 않는」신사로 불려왔다. 영국경찰의 직무 슬로건은 이를 잘 대변해 준다.「힘의 사용의 최소화, 공공봉사의 최대화」다.

그러나 영국경찰도 최근에는 사나와졌다. 잦은 폭동과 데모로 희생자수가 느는것이 이유다. 지난해 말에는 브리스톨지역의 폭동에서 경찰관 2백41명이 부상을 당했다. 폭동자들은 단두명이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당시 경찰무장이라고는 플래스틱제방패와 방석모뿐이었다.

방패를 사용한것도 극히최근의 일. 77년「네오파시스트전선」의 가두행진때 처음으로 사용했다.

리버풀폭동이 격화한 것은 경찰이 사상처음으로 최루탄과 고무총탄, 물대포, 소방호스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최루탄과 물대포가 발사되자 화염병이 응답으로 날아왔다. 저항의 강도는 거세어졌다.

청소년들이 점차 거칠어지고 폭력화하는것은 세계적추세다. 특히 문화선진국인 서구, 미국, 일본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욱 짙다. 질서의 파괴로 자신들의 불만을 배설하려한다. 질서파괴현상은 폭동과 퇴폐와 이질문화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영국인구는 5천7백만이다. 이중 유색인종은 79년말 현재 1백92만명, 지금은 2백만을 넘어 전체의 4%에 가깝다. 그들 유색인종이 영국인화 한것은 순전히 타의에서였다.

「고급한 영국인」들의 허드렛일을 위해서 강제로 끌려온것이 었다. 16세기초 아프리카에서 징발돼온 흑인들은 그들의 발바닥에 토열·스탬프가 찍혀있었다. 그들 후손은 지금30만에 가깝다.

일찌기 엘리자베드1세는 『검은물결이 영국천지를 뒤덮을것』을 우려해 그들을추방할것을 지방지사들에게 종용한적도 있다. 영국인들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오늘날에도 변치 않았다. 한하원의원은 공공연히 사회적안정을 위해 유색인종을 추방해야한다고 선언한다. 절대다수를 위한 4%의 희생강요이다. 눈에 보이지않는 인종차별은 계속되어왔다. 실업률이 높을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것은 틀림없이 유색인종이다.

영국의 인종폭동은 하루아침에 경찰의 힘만으로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또 인종폭동은 영국전역에서 그칠것도아니다.

한때 힘만으로 세계를 분할, 강점해왔던 서구선진국 곳곳에서 부단히 이어질것이다. 똑같은 병을 앓고있기때문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정책에의 불만, 질서의 상징인경찰에대한 반항, 소수그룹 유색인종의 사회를향한 적대감속에서 폭력에 익숙해진 유색청소년들이 한일은 뻔하다. 집단의 약탈과 방화등 폭동뿐이다. 【李鍾九기자】

◇폭도와 대치한 英警察들 전통적으로 유일한 방호장비인 헬멧을쓴 英國경찰관들이 9일 맨체스터의 모스·사이드구역에서 플래스틱방패를 들고 폭도들과 대치하고있다. 【맨체스터 9日AP전송=聯合】

印·파키스탄 國境서 충돌

【뉴델리9日AP=聯合】 인도·파키스탄 국경에서 지난7일 양국 국경수비군간에 총격전이벌어져 인도군장교 1명이 죽고 수명이부상했다고 인도의 PTI통신이 9일 뒤늦게 보도했다.

PTI통신은 인도가 통치하는 캐시미르지구 푼치의 멘다르구역 인근의 파키스탄병사들이 국경너머로「도발받지 않은」상태에서 사격을 가해 인도군대위1명을 사살하는 한편 다른 수명을 부상케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 페론女史 마드리드로 出發

【부에노스아이레스9日AP=聯合】 이사벨·페론前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석방된지 4일만인 9일공항주변에 삼엄한 경비가 펴진 가운데 이베리아 항공사소속 보잉747제트여객기를 타고 마드리드를 향해 출발했다.

波、共黨中央委 개막

社會改革에 強穩대결예상

【바르샤바9日AP=聯合】 폴란드는 최근 지난3개월여동안에 최초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국내사태가 돌연 긴장되기 시작한 가운데 10일 내주 개최되는 제9차임시공산당대회를 준비하기위한 제12차당중앙위전체회의에 들어갔다.

관측통들은 바르샤바 지도층내 강·온세력간의 최근 동향으로 미루어 이번 당대회에서 폴란드 사회개혁문제등에 관한 강·온파간의 심각한 충돌이 예상된다고 전하고 당대회개막과 때를 맞춘 이번의 경고파업이 노동사태에대한 바르샤바지도층의 진의를 표면화시키려는 자유노조의 전략에 의한것으로보인다고 덧붙였다.

日서 防衛力增強노력 없으면

"美、對日貿易보복"

타워上院 軍事委長

【東京9日=聯合】 존·타워 미상원군사위위원장은 8일 일본이 방위력증강을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않을 경우 미국민은 동맹국지원에 소극적이 될것이라고 강조, 일본이 일·미·방위력증강여하에 따라 미일안보조약 자체가 흔들릴가능성이 있음을 엄중경고했다고 일본의 신문들이 9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타워위원장은 이날 방미중인 사까따·미찌따(坂田道太)전방위청장관등 일중의원안보특별위원회대표단과 만난자리에서 일본이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방위예산을 금년대비 7·5% 증액에 그치게 한데 대해『커다란 불만과 실망의 뜻』을 표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고 일본신문들이 보도했다.

타워위원장은 특히『부한 동맹국인 일본이 적절한 방위노력을 하지않을경우 미국이 심각한 對日역조를 보이고있는 무역문제와 방위문제를 결부시켜 對日보복을 가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음을 아울러 경고했다』고 일본신문들은 전했다.

미국은 이제까지 금년도에 사상최고의 對日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일본의 방위력증강문제와 무역문제를 별도로 구분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날 타워위원장이 양국간의 무역마찰과 안보마찰이 결부될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 크게 주목을 끌고있다.

◇中共女學生의 권총사격 연습 중국본토가 공산화된 1949년에설립된 上海公安학교에 재학중인여학생들이 권총사격연습을하고있다. 이 학교는 문화혁명기간중 폐쇄됐다가 지난78년 다시문을 열었는데 이사진은 9일 중공관영新華社통신이 공개한 것. 【北京10日AP전송=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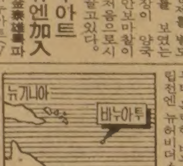
섬나라 바누아트 百55번째 유엔加入

【유엔本部9日=金泰雄특파원】 남태평양의 바누아트(VANUATU)가 9월총회에서 유엔의 1백5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다.

유엔안정보장이사회는 8일 바누아투의 가입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1년전에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바누아투는 독립전엔 뉴헤브리디스로 알려졌으며 70개가 넘는 작은 산호의 섬으로 연결된 15만에 이르는 인구의 야자수의 나라다.

74년간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통치하에 있던 바누아투는 학제·화폐·공용어·경찰등 모든것이 영국과 프랑스식 각각 2중구조로 돼있다.



中共、胡耀邦초상화 걸지 않기로 결정

집단指導체제強調

【北京9日AP=聯合】 중공당중앙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관례와는 달리 胡耀邦신임당주석의 공식초상화를 만들어걸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중공의정통한소식통들이 9일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당중앙위의 이같은 결정이 집단지도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있는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기위한것이라고 말했다.

故毛澤東당주석의 초상화는 한때 전국에 내걸렸으며 지난76년 그의 사망이후에는 毛의 초상화와 후계자 華國鋒전주석의 초상화가 여러곳에 나란히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1인통치에대한 강력한 비판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작년부터는 毛와 華의 초상화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人間의生命 姙娠순간부터 胎兒도 法的권리부여돼야"

美上院「휴먼라이프法案」승인

【워싱턴9日鍾=聯合】 미상원 법사위 권력분리소위원회는 9일『인간의 생명은 임신의 순간부터 시작되며 태아는 이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제반 법적권리를 부여받는다』고 선언하는 법안을 승인, 낙태를 금지시키기 위한 1단계 조치를 취했다.

이 소위원회에서 3대2로 통과된 이법안은『인간의 생명은 임신된때부터 인종과 성、나이、건강상태및 신체장애의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해외토픽

소위『휴먼·라이프法案』으로불리는 이법안은 지난73년 낙태를 자유화한 美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의회의 보수주의자들이 발의했다.

그러나 법사소위원회는 이 법사위의 또다른 소위원회인 헌법소위원회가 낙태를금지시키기위한 헌법개정여부를 결정할때까지 이법안에대한 더이상의 조치를 보류하기로했다.

한편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인사들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경우 낙태수술을 받은 임부가 살인죄로 기소될수도 있으며 따라서 일부 피임방법이 살인행위로 간주될수도있는 경우가 생길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타잔映畵 너무섹시

★美、兒童用으론 민망

미국의 MGM영화사가 얼마전 제작한 영화 타잔의 최신작이 너무 섹시하고 원작에 충실하지못하다는 이유로 제소되어 개작될 위험에 처했다고.

타잔영화의 원작권을 보유하고있는 에드가·라이스·버로우사는 약1년전 새로제작된 타잔영화가 주요시청자인 아동들이 보기에 너무 섹시하다는 이유로 제소했는데 연방판사가 이번주 3개의 타잔영화를 감상한후 개작하는것이 좋겠다고 시사했던것。【뉴욕=AP】

메아리

三伏과 바다

한영사전을 찾아보면 삼복이「독 데이즈」(dog days)라고 영역되어있다. 태양이 마구 쏟아져 내려올것 같은 불볕더위를 우리가 복더위라고말한다면 영어권 사람들은 독·데이즈로 함용쓰니 걸맞은 번역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가 지나고 20일— 오늘이 초복이다. 널리 알려진대로 초복은 하지후 세번째 庚日이고 중복은 네번째 庚日, 그리고 말복은 입추뒤의 庚日이다. 초·중복은 10일 간격으로 오나 말복만은 입추를 기점으로 따져가니 중복이 지나 20일 후일수도있다. 이 경우가 越伏이므로 올해도 越伏이 되어 늦더위가 예상된다.

현행 태양력이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쓰여진것은 1894년 11월이다. 그 이전엔 曆의 기본이 음력이었다. 음력은 중국의 曆이므로 삼복 풍속의 기원도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정할수밖에 없다. 삼복을 숭상한것은 秦漢代부터라고 알려졌다.

조정에선 신하들에게 고기죽을 내리고 민간에서도 떨어지는 입맛을 돋우려 육식을 많이 했다고 한다. 특히 秦代엔 사당문에 개를 달아매어 액땜을 한 풍속도 있었다.

삼복이 「보신탕계절」이 된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밝힐 길이 없다. 고대중국에선 개는 액을 물리치기 위해 매달고 양과 염소고기를 애용했다. 그러나 양과 염소가 귀한 우리나라는 개를 이에 대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민속연구가들의 일부 의견인것같다.

옛날 서울상인들은 「복놀이」를 몹시 즐겼다. 한해를 바쁘게 살다 무더위로 장사도 시원찮으니까 가게문을 닫고 강과 개울을 찾아 고기와과일을 배불리먹은 것이다.

요즘 삼복은 바캉스철이 되었다. 어제부터 일부 해수욕장이 개장했고 15일께까지는 모든 해수욕장이 피서객을 부를 채비로 잔뜩 부풀었다. 제철이 되자 관광여행요금이 오르고 웬만한 호텔과 여관은 벌써 예약이 들어 찬 상태다. 지난해 冷夏의 불경기를 만회하려는 의욕이 복더위보다 뜨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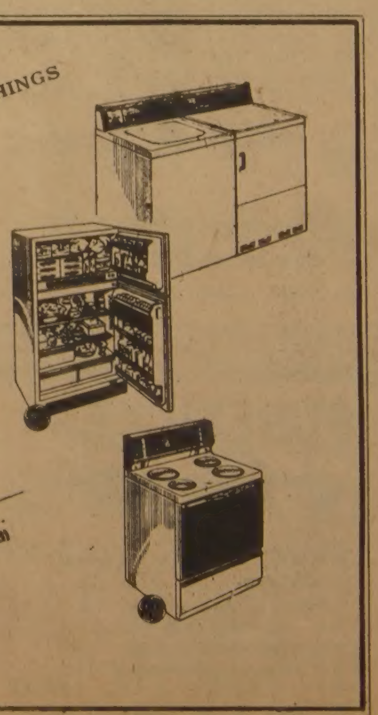
태양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초복이 마침 주말이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집안에 갇혀있기엔 답답할 것이다. 자기 형편에 맞는 건강한 삼복을 살아갈 궁리를 여러모로 하게된다.

한국 식품점 경영주께
감사합니다

우편파업 기간중 한국일보를 무료배부 하시느라고
더위에 수고가 많으시겠읍니다.
폐사는 현재 발행부수를 증가했읍니다. 파업기간중
언제라도 신문이 떨어지면 전화 해주십시요.
(533-2361~4)
식품점 경영주 여러분 우리 서로도와 지루한 우편파업을
슬기롭게 넘깁시다. 신문픽업차 들리시는 교포들을
따뜻히 맞아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저희 신문사는 여러분의 아이디아도 항상 환영합니다.
식품점 경영주 제위께 지면을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한 국 일 보 —

偉信電器地毡公司
WILSON APPLIANCES & HOME FURNISHINGS
BUY NOW & SAVE!
각종 전자제품.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모든전자제품 특별세일.
593-1801. 1802
83 GERRARD ST.
(LuCliff Place · Bay & Gerrard)
WA



東草高 결승토너進出 확보

男女우수中高배구 金鍾國활약 馬山中央제압

【釜山=聯】 제16회 전국남녀우수배구대회겸 제8회회장기쟁탈 전국중고대회 사흘째경기가 10일 釜山九德체육관에서 속행, 남고A조의 東草高는 馬山中央高를 스트레이트로 제압해 1승1패를기록, 결승토너진출권을 확보했다. 東草高는 1시간57분이 걸린 馬山中央과의 대결에서 金鍾國과 2년생 李基三(1m83)의 좌우강타로 1, 2세트를 쉽게 따냈으나 3세트서는 馬山中央의 완강한 수비에 고전, 듀스끝에 간신히 경기를 끝냈다. 東草高는 3세트초반 5-2로 앞서나가다가 수비미스가 속출, 5-9로 역전됐으나 다시 金鍾國의 강타가 터져 전세를 만회, 17-15로 재역전에 성공해 경기를 끝냈다.

한편 여중A조에서는 서울誠信女中과 馬山第一女中이 나란히 2연승을기록, 함께결선에 진출케됐으며 3팀이 출전, 풀리그로 벌어지고 있는 남중부에서는 晋州東明中이 裡里南星을 눌러 金山東亞中과 패권다툼을 벌이게됐다.

◇제3일전적
▲남고A조
속초고 3 (17-15 15-11 15-12) 0 마산중앙 (1승1패)(1패)
▲남중부
진주동명 2 (15-6 15-8) 0 이리남성
(1승)
▲여중A조
서울성신 2 (15-8 15-10) 0 부산은하 (2패)
(2승) 마산일제 2 (15-7 15-6) 0 부산수정 (1승2패)(3패)

漢榮高·中大附 승리

전국체전 축구예선 漢陽工·南崗 꺾고

전국체전 축구 서울시예선대회 3일째 경기가 10일효창운동장에서 열려, 漢榮高와 中大附高가 승부차기로 漢陽工과 南崗高를 각각 물리쳤다.

漢榮은 전반26분께 漢陽工 金鍾根에게 선제골을 빼앗겼으나 경기종료 2분전 朴根直이 동점골을 뽑아내 극적타이를 이루고 승부차기에서 4-1로 승리했다.

◇제3일전적
▲2회전
한영고 1 (0-1 1-0) 1 한양공고
(승부차기4-1)
중대부고 1 (1-0 0-1) 1 남강고

金泰式 타이틀도전 8월9일 서울에서 WBC플라이級

〈승부차기5-3〉

【멕시코시티9日AP=聯】WBC(세계복싱평의회)플라이급챔피언 안토니오·아벨라르(멕시코)가 오는 8월9일 서울에서 도전자 金泰式선수와 타이틀전을 갖는다고 WBC측이 8일 밝혔다.

WBC는 챔피언 아벨라르가 내주 韓國으로가 타이틀전에 대비한 트레이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J오픈選手權 組織委員會 현판식 陸上경기聯盟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오는 8월15, 16일 열리는 서울오픈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현판식을 張寬龍 조직위원장을 비롯 徐潤福 사무총장등 많은 육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운동장내에 마련된 조직위원회사무실에서 가졌다.

첫날 大會新 28개수확

◇넓이뛰기大會新 남일반넓이뛰기서 檀國大의 李식이 6m79를 뛰어 대회신기록을 세우고있다.

회장기쟁탈 初·中·高 陸上

金福燮(男中) 百m 11秒1

서울體高, 4百m계주 42초5로 우승

제2회 회장기쟁탈 서울시·초·중·고등학교대항 육상경기대회가 10일 서울운동장서 개막, 3일간의 경기에 들어갔다. 전국 체전 서울시 예선전을 겸한 이번대회 첫날경기서 대회신 28개, 대회타이 5개등 비교적 좋은 수확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주목을 끌었던 여자높이뛰기 한국기록보유자 金希重(체육고)은 발목부상으로, 국가대표 田京美(경기여고)는 신병으로 불참했다.

金希重 부상·田京美 신병으로 不參

남중 1백m서 金福燮(고명중)은 11초1을 기록, 대회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고 1백m서 徐末九, 張在根의 뒤를 이을 유망주로 주목을 끌었다. 한편 남고4백m계주서 서울體高는 42초5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제1일기록(각종목1위)

▲남일반 넓이뛰기=이식(단국대)6m79(대회신·종전6m53)▲동투원반=김나현(인천체전)35m74▲동1만m=조한수(경희대)34분58초9(대회신·종전36분25초2)▲동1백m=이종명(대한전선)11초F▲여일반1백m=정향래(일반)13초F(대회신·종전14초2)▲남고투원반=민세훈(체육고)52m58(대회신·종전48m66)▲동5천m=엄순현(배문)15분22초4▲동8백m=이상섭(체육고)1분56초4▲동1백m=이돈영(체육고)11초F(대회신·종전11초1)▲남중1백m=김복섭(고명)11초1(대회신·종전11초6)▲여고투포환=우현선(체육고)12m20(대회신·종전11m98)▲동높이뛰기=김정희(이화)1m65(대회타이)▲동1백m=김미숙(이화)12초5▲남일반투창=김도훈(인천체전)49m10▲동4백m허들=송영표(성대)1분02초▲여일반1천5백m=김미옥(단대)5분54초3▲동4백m=김재화(단대)1분10초2▲남고투창=최형욱(체육고)61m05▲동넓이뛰기=박성연(체육고)7m62▲동4백m계주=서울체고42초5(대회신·종전42초9)▲여고4백m계주=이화여고49초8

忠義 대표팀으로 8월 軍人세계대회 出戰

금년도 국제군인축구대회 한국대표선발전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효창구장에서 열려 忠義(陸士소속)가 2전 전승으로 우승, 대표팀으로 선발되었다. 海軍은 1승1패로2위, 武는 2패로 3위가되었다. 尹泰均단장을 비롯 朴成華 趙廣來등 국가대표선수들을 주전으로 구성된 20명의忠義선수단은 오는 8월에 열리는 세계군인 축구대회에출전한다.

美 4勝단독선두 존즈컵 國際농구

【臺北9日聯=聯】美國은9일 臺北中華체육관에서 속개된 제5회 존즈컵쟁탈국제여자농구대회 결승리그 3일째 경기에서 自由中國青팀을 89-72로 제압, 4승으로 단독선두에 나섰다. 한편 네덜란드는 뉴질랜드를 49-39로물리치고 3연승을 기록, 10일 韓國과 대전한다. 또한 自由中國白팀은 캐나다에 63-58로신승, 1승을올렸다.

◇결승리그2일째
美國 89 (49-28 40-44) 72 自由中國青 (4승)(2승1패)
네덜란드 49 (26-18 23-21) 39 뉴질랜드 (3승)(3패)
自由中國白 63 (33-25 30-33) 58 캐나다 (1승2패)(4패)

海外人氣話題

NFO、美야구 분규항의 팬들에 리본등 착용요청

지난 6월12일 美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파업을 시작한 이후 결성된 전국야구팬기구(NFO)는 파업33일째를맞게될 오는 14일 구단주와 선수들간의 분규에 항의하는뜻으로 모든팬들에게 빨간 옷 또는 리본, 넥타이 밴드를 착용하도록 요청했다.

NFO의 집행위원인 켄·스미드씨는 빨강색의 항의는 메이저 리그분규에대한 팬들의 분노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스타·게임이 예정된 14일 우선 조건없이 양측이만나 경기를 재개하고 다음계약에관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촉구했다.

스미드씨는『팬들은 이번 문제에서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다. 어느측도 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불공정을 없애기위해 우리자신의 조직을 만들었다』고말했다.

사무실용구 판매업자인 스미드씨는 몬트리올·오리올즈의 금년시즌티켓을 구입, 오리올즈의 경기를 관전키위해 필라델피아, 뉴욕으로날아다니던 야구팬. 그는 전국26개구단 팬들중 2만명이 NFO의 회원이라며 7월14일의 赤色항의로 구단주나 선수, 양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紐約=聯】

◇메이저·리그의 열렬한 팬인 제리·크리츠씨가 보스턴 레드·삭스의 모자를 처들어보이며 14일 메이저·리그파업에 항의하는 뜻으로 모든 팬들이 야구모자를 쓸것을 제의하고있다. 【AP=聯】

本因坊戰 5局서 패

趙名人 3勝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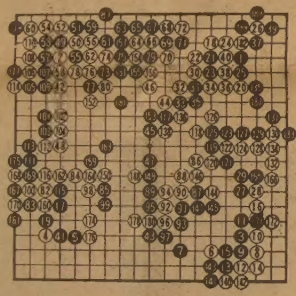
【하꼬네(箱根)10日=宋孝彬특파원】 제36기 本因坊戰에 도전하고있는 趙治勳名人은 도전7번기 제5국에서 또다시 석패, 타이틀쟁취 일보직전에서 아깝게 물러섰다.

趙名人은 8, 9양일간 하꼬네市에서열린 대국에서 白을들고 중반에 이르기까지 유리한 판세를 짜나가다 白1백14의 의문수(1백69자리에 놓아야했음)와 1백60의 패를만든 패착을두어 국면이 역전패 1백83수만에 돌을던졌다.

그러나 도를스코어 3승2패로 나머지 2국중 1국만 이기면 타이틀을 탈환할수있어 다케미야(武宮正樹)本因坊에비해 유리한 고지를차지하고있다.

제6국은 오는 15, 16양일간 시즈오까겐(靜岡縣)아다미(熱海)에서 열린다.

◇제36기本因坊도전7번기 제5국總譜(1~183)
黑本因坊 武宮正樹9단(2승3패)
白名人 趙治勳 9단(3승2패)
(제한시간 각9시간 黑5집반공제)
〈※158=79 173=167 일곳〉



카메라告發

소주병속에 異物質 동동

유명메이커의 소주 병속에 휴지쪽 같은 오물이 떠있다.

지난 5월23일 하오 3시께 경기 驪州郡 驪州邑下里 제일식당에서 점심식사 반주로 진로 소주 2병을 시킨 金永九씨(32·경기 驪州郡 驪州邑 弘門里)등 동석자 4명은 그중1개의 소주병 속에 떠있는 불순물을 발견, 이 소주를 두겅을 따지않은채 계속보관하고 있다가 10일 본사로가져왔다. 金씨는『전국주당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있는 이유명상표의 소주속에 이처럼 누구나 식별할수 있는 불순물이 섞여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經濟短信

◆韓中 경제會談
올해 韓中경제각료회담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大淸댐 20m붕괴
大淸다목적댐이 지난 6일상오7시께 내린비로 忠北文義面德留里쪽 댐옹벽20여m가 무너져 1천8백여만원의 피해.

◆對韓원조 74억弗
한국은 1945년부터 지난79년까지 미국으로부터모두74억달러상당의 경제원조를 받았다고 10일 美상무성이 발표.

◆三益 支社설치
三益住宅은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사우디의 리야드, 뉴욕, 싱가포르, 동경등지에 支社를 설립하고 9억4천여만달러의 受注를 추진중.

洪承一·全美景 연예계데뷰

詩人 洪思容손자·배우 尹貞蘭의딸

20년대 문예同人誌「白潮」同人으로 극회「土月會」를 이끌었던 시인 洪思容씨(47년사망)의 손자와, 40~50년대 연극·영화에서 활동했던 배우 尹貞蘭씨(78년사망)의 딸이 각각 영화배우와 가수로 데뷔, 연예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촬영중인 영화「내 이름은 마야」(감독 金應天)에서 주연한 洪承一군(24)은「나는, 노이로소이다」등 많은 저서를 남긴 洪思容씨의 손자. 그리고 최근「소중한 사람」「종국화」(작사·작곡 張世勇)등을 불러 가수로데뷔한 全美景양(19)이 50년대의 영화「半島의 봄」「영광의 길」등에 출연했던 尹貞蘭씨의 2남4녀중 막내딸.

◇洪承一

◇全美景

北濟州「빌레못 丘陵」

세계最長 단일동굴 判明

韓·日조사반評價

【濟州=聯】北濟州郡涯月邑於音2里 동남쪽 1km 지점에 위치한「빌레못구릉」이 세계에서 제일 긴 총길이 1만1천7백49m의 단일용암동굴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建國大 洪始煥교수를 반장으로한 한일합동조사반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동안 이동굴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한결과 밝혀졌는데 이동굴 안에는 길이 77mcm의 가지용암석순과 직경 2mm가량의 용암구슬을 비롯, 버섯형용암등 갖가지 모양의 용암류석이 발견돼 세계에서도 보기드문 동굴로 평가된다는것.

鳳凰旗고교야구 對陣日程 확정

8월6일부터 18일간

개막부터 馬山·光州商 強者격돌

三伏식힐 빅카드 49게임

제11회 鳳凰大旗 전국고교야구대회의 대진일정이 확정되었다. 在日同胞팀을 포함, 전국49개 고교팀이 참가, 국내야구대회사상 최대규모를 이룰 제11회 鳳凰大旗대회는 8월6일 상오10시 입장식의 퍼레이드에 이어 상오11시 馬山高-光州商高의 빅·카드를 스타트로 18일간 49게임의열전에 들어간다.

8월11일까지 진행되는 1회전서부터 개막경기 馬山高-光州商高전을 비롯, 全州高-徽文高(7일) 大田高-中央高(8일) 光州一高-東山高(9일) 慶南高-善隣商高(10일)등 승부의 예측을 불허하는 굵직한 카드들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11일부터 16일까지는 16강을 가려내는 2회전경기가, 17일부터 19일까지는 4強을 가리는 준준결승경기가 진행된다.

대망의 결승진출권을 가리는 준결승2게임은 22일에, 영광의 草綠 鳳凰大旗의 주인을 결정할 결정전은 23일 3·4위전에 이어 하오 3시에 벌어진다.

徽文高 / 全州高 (7.3시반) (15.3시반)
仁川體高 / 冲岩高 (11.1시)
서울高 / 聖光高 (11.10시) (14.3시반)
公州高
光州眞興 (16.1시)
善隣商高 / 慶南高 (10.3시)
京畿高 / 釜山高 (9.10시) (16.10시반)
奬忠高
慶北高 (15.1시)
中央高 / 大田高 (8.3시)
木浦商高 / 慶南商高 (7.1시) (12.1시)
培明高
仁川高 (15.10시반)
東大門商 / 浦鐵工高 (10.10시)
淸州高 / 心石綜高 (6.1시반) (12.10시반)
城南高
信一高 (12.3시반)
東山高 / 光州一高 (9.3시반)
江陵高 / 德壽商高 (7.10시) (13.1시)
北一高
馬山商高 (14.1시)
明知高 / 世光高 (8.1시)
普成高 / 大邱商高 (6.4시) (14.10시반)
春川高
培材高 (16.10시반)
永同商高 / 在日同胞 (9.1시)
大邱高 / 京東高 (10.1시) (13.3시반)
群山商高
釜山商高 (13.10시반)
培文高 / 南大田高 (8.10시)
光州商高 / 馬山高 (6.11시) (11.3시반)
大光高

U대회出戰 결단식

임원·선수등 74명구성 13일壯途

루마니아에서 개최되는 유니버시아드(세계대학생경기대회)에 출전할 한국대표선수단의 결단식이 10일 상오 체육회장실에서 거행됐다. 임원20명 선수50명(남자46 여자4) 국제심판4명등 74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은 13일밤 9시 KAL편으로 출국한다.

曺相鎬체육회장은 이날 결단식에서 張忠植단장(대학스포츠위원회위원장)에게 단기를 전달하고『처음 입국하는 공산국가이니만큼 특히 매사에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모범적인 행동을할것이며 훌륭한 경기매너로 선전분투해달라』고 당부했다. 張단장은『입원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가진 실력을 충분히 발휘, 좋은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19일 개막되는 이번 제11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는 65개국이 참가할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은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모두 6차례참가했다. 79년 제10회 멕시코대회에서는 남자배구가 銅메달을 획득한바있다.

명예회원 추대 못받아

매켄로 코트서 불손행위이유

【런던9日聯=聯】금년윔블던테니스남자단식과 복식을 제패, 세계남자테니스계에 새로운 시대를 연존·매켄로(22)가 코트에서의 불손행위로인해 전통적으로 윔블던챔피언에게 주어지는 全英테니스클럽의 명예회원으로 추대받지 못할것이라고 윔블던챔피언위원회가 9일 밝혔다.

현역 공군대장인 브라이언·버네트경이 회장으로 있는 全英테니스클럽은 그러나 매켄로가 챔피언으로서의 품위를 지킨다면 언제라도 회원이 될수있도록 문호를 개방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LA 同胞선발팀 大統領旗 競技출전차 入國 高校농구

오는12일부터 19일까지 奬忠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3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에 출전할 美國로스앤젤레스거주동포고교선발팀 8명(단장 朴性圭, 선수7)이 9일 귀국했다.

示威法위반 成大生 징역 1년~8월

서울형사지법 李範桂판사는 10일 成均館대학 구내에서 불온유인물을 뿌리고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成均館대생 權善準피고인(23·경제과4년)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피고인들에게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최고 징역1년에서 최하 징역8월까지 선고했다.

▲權善準 징역1년▲李顯雨(23·전자공학과4년)징역1년▲李浩悅(22·금속공학과2년·제적생)징역1년▲沈載桓(21·경제과4년)징역8월▲孫重陽(22·철학과4년)징역8월▲金安熙(21·사학과2년)징역8월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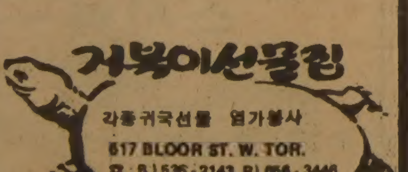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선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7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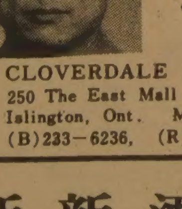
참 행복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말씀
CITY T.V.
CHANNEL 79
CABLE 7
SUNDAY
AM 9:30-10:00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B)535-2143 R)656-3446
대표 이 정 석

NIPPON VIDEO CENTRE
1993 Danforth Ave.
Toronto, Ont.
Tel.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일본비데오센터
BETA, VHS두종류
※일본, 한국 테이프 준비됐읍니다.
두종류의 테이프가 있읍니다.
●비데오테이프레코더의 판매
●비데오테이프대출(빌려줌)
월, 수, 토: 오전10시~오후6시
목, 금 오전10~8시 회원모집(특별할인)
화요일은 문 닫습니다. 우드바인서쪽 1 block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맥주, 카페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제공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Spadina코너)
☎: 977-3142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961-3111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 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10시~7시
일요일: 오후3시~7시
706 BLOOR ST.W. ☎: 534-2008

"검찰上訴權남발 自制"

大檢、개선指針마련 彈力운용키로

就業제약등 고삐풀려

검찰권의 핵심중 하나인 상소권이 대폭자제된다。이같은 결정은 피고인들이 검찰상소에 대응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상소기간동안 가져야했던 불안감과 해외여행이나 취업등 갖가지 사회활동에 제약을주던 고삐가 많이 풀리게되는 것을 뜻한다。대검은 10일그동안 검찰의상소권행사가 지나치게획일적이고 기계적이었으며 때로는책임을 면하기위해 무조건 상소하는경향까지 있었음을인정、앞으로는 상소권행사를대폭제한하고 탄력성있고 신중하게 운용될 수있게 하기로결정、「검찰상소권행사개선방안」을 마련했다。

免責用"무조건"지양愼重

"구형 1/2이하宣告면 기계적上訴"폐습

따라서 지금까지 검찰의상소권행사가 『법원이 검사구형량의 2분의1이하로 선고할경우에는 무조건 상소한다』는식의 일정기준에 얽매여 기계적으로 상소함으로써 생기는국민들의 대검찰불신풍조는상당히 줄어들것으로 보이며 상소사건의 95%이상이 법원에의해 기각당해 국가소추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측면도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검찰개선방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법원이 검사구형량의 2분의1이하를 선고할 때는 무조건 상소하게돼있던 내부지침을 완전폐지하고 각급검찰에대한 대검사무감사 때에도 이에대한 자료요구를 하지않기로했다。

또 지금까지는 1심에서 무죄선고가난 사건에 대해서만 상소여부를 심의하던 각지검단위의 공소심의회(회장 공판부장)의 운영을 강화、상소할 모든사건은 이공소심의회의 심의를거쳐 상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방안은 검사에대한 평점에서도 지금까지 기소사건가운데 무죄판결이난 경우에만 평점에 반영하던것을 상소권남용여부도 평점기준에 반영시키기로했다。

이밖에 채증법칙위배나 법령적용의 잘못으로 상소하는 경우에도 『법원과견해를달리한다』는 형식적인이유보다는 법원의 판단이 부당한경우에만 상소권을행사하도록 했고 각급검찰은 매분기별로 상소사건현황분석표를 작성、대검에보고해 상소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받도록했다。

그러나 대검은 『반국가사범、반사회사범등 중범죄나 사회의 이목을 끄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공소유지와 엄정한 구형、과감한 상소권행사로 검찰의 의지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해설 上訴95%이상 法院서 기각

피고인 人權옹호에 活力素 불구속피고인 不安도 씻어

검찰의 이같은 자제、신중방향은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검찰이 각종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刑事司法의정의를 실현하기위해서는 범죄수사는 물론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소권및 상소권의 적정한 행사」도 중요한 요체가 되기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공소권행사에 있어서는 사안이 비록 기소해야 마땅하다해도 정상등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등의 「기소편의주의」를 활용、탄력있게 공소권을 행사해왔으나 유독 상소권행사에 있어서만은 구태의연했던게 사실이다。

통계로만 봐도 지난해 1년간 전체항소사건 3만6천5백91명 가운데 검사항소가 1만5천3백90명으로 42%였으며 이중 무려 97·1%가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검찰상고사건 역시 94·6%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것은 피고인 항소사건의 56·3%만이 기각되는 것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검찰의항소사건이 전체 항소사건의 4·3%에 불과하며 기각률 역시 24%에 불과한 것을 볼때 우리 검찰의 상소권행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수있게 하는 것이다。

『검사구형량의 2분의1이하 선고시는 무조건상소하라』는 내부지침에 얽매여 검사들은 거의 기계적、면책적으로 상소를 남발、법원의 재판업무를 가중시켜왔고 이때문에 이번에 대검이 밝힌 것처럼무조건적인 검찰상소가 법원에 의해 거의 기각되는편견까지 생기게된 것이다。

또 검사의 재량권이 제약된 획일적 상소인만큼상소이유서의 작성이 형식적일수박에 없었고 이때문에 법원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등 검사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결핍 돼있었다。

게다가 무조건 검찰상소는구속피고인의 구속장기화를 가져오고 불구속피고인에게도 불안감을 주어온게 사실이다。

특히 상소권의 남발로인해 피고인에대한 인권침해도 컸던만큼 검찰의 상소권행사제한 방침은 국민인권옹호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게됐다。

예를들어 1심에서 검사의 구형량이 10년이상이었던 구속피고인은 무죄、선고유예、집행유예등의 판결이 내려져도 검사의상소로 석방이 되지않은채 2심4개월、3심4개월의구속기간을 거치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했다。

또 1심에서 집행유예등으로 석방돼도 검사가 기계적으로 계속 항소、상고하면 이에 대항하는 법률행위도 금전적、정신적 부담을 가져야했고 불구속일망정 형이 확정될때까지는 장기적인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려야하는데다 형이 미확정상태이므로 해외 여행이나 취업에 제한이있는등 국민생활의 침해가 컸다。

앞으로 검찰이 상소권을 선별적으로 탄력있게 운용하겠다는것은 지금까지 시행해온 기소편의주의와 함께 전체 소추권행사를 신중히함으로써 그 권위를높이자는것인데 어쨌든 우리 검찰이 합리사회를위한 선도역할을 하는것이돼 칭찬할만하다。

【崔奎植기자】

20代청년을 검거 青瓦臺직원 詐稱

【利川=聯】 경기도利川경찰서는 9일 청와대직원을 사칭、사기행각을 벌여온 金泰九씨(29·무직·경기도利川郡夫鉢面河山里466)를 사기혐의로 검거、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3월27일 구청와대신분증을 위조、青瓦臺직원이라고 사칭하고 鄭炳玉씨(30·경남고교교사)에게 대한유공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교제비조로 40만원을 받은것을 비롯、3월중순에는 6·25당시 전상용사인 金德俊씨(53·蔚山市達洞)에게 원호대상자로 등록시켜주겠다며 4회에 걸쳐 1백40만원을 사취한 혐의이다。

工產品값 관리 避해 生必品등 42品目은 계속監視

10일 商工部는 주요공산품가격관리에 대한 정부의 최근행정방침에도 불구、개별품목의 가격관리는 가급적 피한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행정統制에의한 가격관리의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공정거래제도시행에 맞춰 물가정책의 기본은 여전히 總需要관리와 공급確保와、또輸入、關稅정책의 적극적인 활용등에두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25개기본 生計품목을비롯、공정거래법에따라 지정된 42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가격감시를 계속 해나가겠지만 기타 행정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예컨대 가격인상폭이 한꺼번에 30%가 된다거나 하는등 특별히 부당인상의 느낌이있는한 가급정부의 개별가격관리는 피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金星社사과廣告 不問에붙이기로 公正去來委

10일열린 공정거래위원회는 냉장고허위광고에대한 최근의 정부是正명령조치를 어긴 金星社광고文案을 검토、이를 不問에 붙이기로 의결했다。

金星社의 허위、과장광고에대한 정부의 是正광고명령조치는 ①냉장고그림의 높이를 8cm로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7·7cm에 그쳤고 사과문의 제목과 회사이름을 2호활자크기로 지정했으나 실제회사이름은그보다작은 4호활자로했으며 ③사과광고게재는 정부의 의견서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해야하나 濟州신문은 是正광고의경우 하루늦은 8일째에 게재되었다는것。

龜尾工團근로자 호흡·소화기疾患

【龜尾=聯】 龜尾工團취업근로자의 50%이상이 호흡기및 소화기계통의 질환을 앓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龜尾공단의 의료보험조합이 77년6월 창립이후 지난5월말까지 4년동안 관내 2백32개사업장의의료보험수혜자 4만8천6백16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3회씩 모두 14만1천5백6건에 달하는 진료결과를 분석한데서 나타났는데 총진료건수의 56·8%인 8만3백82건이 호흡기및 소화기계통의 질환으로 밝혀졌다는 것。

질병별로는 호흡기계통이 전체의 32%인 4만5천2백8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소화기계통으로 24·8%인 3만5천99건이었으며 이밖에 피부및 피하조직 9·4% 신경계및 감각기 7% 중독 5·7% 기타 정신장애·비뇨및 생식기계통·골격조직·기생충감염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정확한 병명을 알수없는 질환도 1·2%인 1천6백93건이나 되고있다。

노동부 龜尾지방사무소는 이번 조사를 근거로 관내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한 근로조건 정밀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柳致松 民韓黨총재 브라질의원과 환담

中南美를 순방중인 柳致松民韓黨총재는 10일상오(한국시간) 카유에 브라질上院의장 직무대리와 만나 양국議會의 교류증진방안 문제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늘은 初伏 장마前線 또北上

11일은 初伏。중앙관상대에 의하면 이날 중부지방은 약한고기압권에들어 가끔구름이 끼겠으나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계속받아 비가오는곳이 많고 최고기온은 28～32도의 분포。

또 휴일인 12일에는 남쪽으로 내려갔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13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비가 내릴전망이다。

北傀방문 萬景峰호 日再入國 허가키로

【東京9日=聯】 시모노세끼(下關)시당국은 9일 북괴방문을 마치고 재입국하는 1백29명의 조총련계 재일한국인들이 승선하고있는 북괴북송선 萬景峰호의 입항을 허가하기로결정했다。

시당국은 당초 민단계와조총련계교포단체 충돌사태를 우려、萬景峰호의 입항신청을 거부할계획이었으나 민단과 조총련으로부터 소란행동을 피하겠다는 다짐을 받은뒤 입항을 허가키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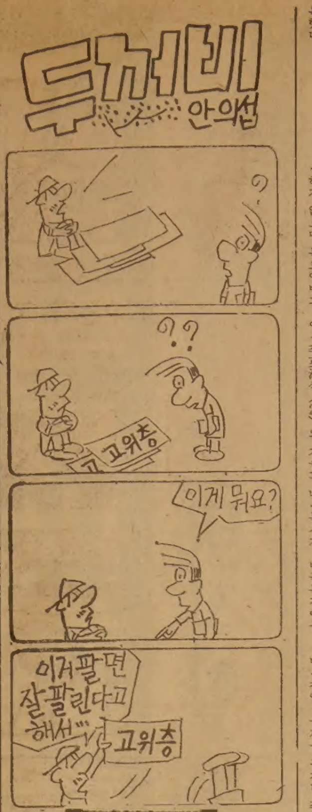
萬景峰호는 조총련계교포들은 성묘를 명분으로 지난6월중순 니이가따(新潟)항을 떠나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北傀勞組대표 日、入國을거부

【東京9日=宋孝빈특파원】 일본정부는 總評(일본 노조총평의회) 초청으로 13일 방일케돼있던 북한의 직업동맹위원장 金鳳柱등4명의 입국을 불허했다고 9일 외무성소식통이 밝혔다。

金등 4명은 13일 일본에 들어와 일본교육노조와 總評등을 방문、북괴의 선전활동을 하려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內務部 民防衛동원·非常근무령

農水産部 발생警報 잎稻熱病기승 긴급防除令

전국 1千헥타 피해

장마가 주춤거리는사이 벼잎도열병이 전국적으로 무섭게 퍼지고있다。

농수산부는 오랜 가뭄끝의 장마로 도열병이발생하자 10일 올들어 첫잎도열병발생경보를 발표하고 병충해 방제 총동원령을 내렸다。이에따라 내무부도 전국시·도지사에게 민방위동원령을 발동、전행정공무원에게 비상근무토록하는 한편 민방위병력을 공동방제에 최대한 투입하도록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지난6월중순이후 계속된강우로 기온및 습도가높아 잎도열병발생에 좋은조건을 주었기때문에 잎도열병에 쉽게걸리는품종인 낙동벼·아끼바레의 확대재배지역인 전국 1백79개시군 1천2백84개읍면의 8천1백76개지역에서 모두 1천여헥타에 잎도열병이발생、크게 번지고있다는 것。

농수산부당국은 잎도열병이 초기에 긴급방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목도열병과 연결되어 벼농사에 치명적인타격을 준다고 경고하고 비가개는 사이를이용、틈틈이 방제에 힘쓰고 장마기간동안은 질소비료의 과용을말도록 당부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지난5년동안 병충해로인한 평균감수는 24·5%에 달했고 이중 도열병에 의한 감수가 70를 차지했다。

가정집에 殺人강도 혼자집보던 主婦刺殺 금품털어

【仁川=聯】 9일하오3시30분께 仁川市北區石南洞48 [illegible]용구씨(32)집에 강도가 들어 혼자 집을보던 [illegible]씨부인 李英淑씨(25)의 가슴과 배등 5군데를 칼로 찔러 숨지게하고 안방에 있던 컬러TV 1대、1·5푼짜리 다이어반지 1개、오메가 여자손목시계、백금목걸이등 1백50여만원어치를 털어 달아났다。

이날 범인은 李씨가 인근가게에 물건을 사러간 사이 침입、물건을 훔치다 李씨가 들어오자 칼로 마구 찔러 숨지게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新峴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인근 불량배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學業부진悲觀 10代목매自殺

【光州=聯】 10일새벽6시께 光州市東區瑞石洞 朝鮮大캠퍼스내 조대부중옆 높이 10m의 플라타너스 나무에 조대부고2년 金光洙군(17)이 나일론끈으로 목매 자살한시체로 발견됐다。

뇌염모기 점차北上

보건소등백신確保 "유료接種 月內끝내야"

保社部

뇌염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6월하순이후 濟州지방에서부터 급증하기시작해 점차북상하고있다。

10일 보사부는 이에따라 濟州를 비롯한 남부지방에서 뇌염방역활동을 특히 강화하고 각 보건소에 대해 뇌염백신을조속히구입해 유료접종、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이달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긴급 지시했다。

방역당국은 濟州지방의 경우 뇌염모기 발생빈도가 지난 6월 중순까지만해도 전체모기의 3·7%에 불과하던것이 6월하순에 들면서 급증、35·0%나 된다고 밝히고 7월중순이후 50%로넘어설 것으로 전망、濟州지역에 뇌염경보를 내릴것을검토중이다。

뇌염모기는 이밖에 부산지역에서도 6월하순쯤 5마리가 채집되고 전남의 完州、光州에서도 각각 3마리、7마리가 발견되는등 점차북상하고 있으며 일반모기도 6월중순에 비하면 평균40～50배가 늘어나고 있다는것。

방역당국은 6월말현재 전국적으로 모기발생률이 중순보다도 41·6배가 늘어나고있으나 이중 뇌염모기발생율은 1·58%(82마리)에 그치고있어 아직 전국적인뇌염경보를 내릴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그러나 현재 각보건소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접종하는 무료예방은 거의끝났는데비해 유료접종의 경우 일부 보건소、학교등에서 뇌염백신의 일괄구입접종을 기피하고있는 경향이있다고 지적、이달안에 모두 접종을끝내도록 지시한 것이다。

올해 뇌염백신 생산량은 3백89만3천ml(1ml는 1명1회접종분)이며 작년 이월분 2만2천ml를 포함、올해 접종대상목표는 약 4백만명분인데 이가운데 영세민에대한 무료접종대상 66만명을 빼고는 나머지 모두가 유료접종으로 실시되고 있다。

◇暴炎속 나르는 시원한 물줄기 시민들이 서울南山 분수대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바라보며 더위를 식히고있다。

ORIENTAL PALACE LTD.

이스턴 후로라 무용단

뉴―서울

스시빠―신설개업중

이스턴 후로라― 무용단은 처음 북미를 방문하여 오리엔탈 파레스에서 첫 공연을 갖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앞으로 뉴―욕과 라스베가스에서도 공연이 약속된 이스턴 후로라에 기대를 가지면서 자신을 갖고 여러분을 모시고저 하오니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박 인 순 배

피로연, 회갑잔치, 각종 대소 파―티 예약환영

연중무휴―(일요일은 오후4시부터 10시까지)

529 BLOOR ST. W. TORONTO, ONT.

전화 : 533―3545～6, 533～1500

캐나다의 랩소디
—Canadian Rhapsody—③

글·그림 신동헌

내가 지금 밴쿠버에서이 원고를 쓰면서 먼저 앞서는 걱정이 있다. 그것은어떻게하면 토론토의<한국일보>지사 편집마감에 늦지 않도록 글과 그림을 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일이다.

"무슨소리 17센트 우표값이 아까워서 그러느냐? 얼른써서 항공우편으로 보내면 될게아닌가?"고물는 친구가 있을는지도 모르나 내가 그걸 모르는바 아니고, 아무리 전전하는 나그네의 신세이기로소니 우표한장값 17센트가 아까워서도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그 충고대로 하는날이면 이원고는 부지하세월, 언제 신문에 실려 햇빛을 보게될지 모르겠기에 지금 걱정이 태산같다.

사유인즉 수일전 자정을 기하여 캐나다 전국의 우체국 내근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서 사실상 모든 체신사업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캐나다엔 먹을것도 많고 나무도많고, 산도많고, 물도 많고, 광물도많고, 그밖에도 많은것이 많은데 스트라이크도 이곳처럼 많은나라를 본적이 없다.

하기야 "도둑맞은건대의 사정이고, 우리는 봉급이나 올려 받아야겠다"고 경찰관들 까지도 파업을하는 나라니 말이야 다한거나다름이 없지만 내가 오늘까지 도합 8개월가량 있는동안에도 파업을 수차례겪고 몹시 불편을 느꼈으니 이기회에 한번 캐나다의 스트라이크에대한 넋두리를 늘어놓을까 해서 얘기를좀더 계속하련다.

내가 작년 8월10일밤 밴쿠버 공항에 '내린것이 캐나다땅을 밟은 제1보였다.

한국으로 치면 아직 삼복더위라 시원한 맥주로여독을 씻으려고 했지만 맥주는 없다는 대답이었다. 맥주제조업의 근로자들이 파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스트라이크는 상당기간 계속되다가 여름철이다 지난 후에야 풀렸다.

맥주제조업 노사간에 무슨 분규가 있어서 스트라이크까지 단행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돈 내고 마시려는 수요가에게는 성수기를 노려 파업에 들어간 노무자들에게 별로 동정이 갈리가 없었고, 견디다 못한 맥주애음가들은미국 워싱턴주에까지 원정가서 자가용차 트렁크 속에 맥주상자를 싣고 오는 고역을 치렀다고 한다. 그때의 갈증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같은데, 토론토로 갔다가 지난 4월말에 다시 이곳에 올 때는 밴쿠버의 아름다운 경치에 향수같은 것마저 느끼면서내렸는데, 웬걸 거리마다 쓰레기 투성이었다. 이번에는 시청 청소직원들이 파업중이기 때문이었다. 버스속의 어떤 영감이"인제 뱅쿠버는 가아비지·쿠버(쓰레기·쿠버)야 갓댐!!" 하면서 투덜거렸다.

세계4대미항의 하나라는 밴쿠버가 온통 먼지와 쓰레기로 덮였으니 갓댐소리가 나올만도 했다.

맥주는 안마셔도 살수있고, 먼지는 좀 뒤집어써도 견딜만 하다.

그런데 나같은경우 우체국 직원들의 스트라이크는 제 큰 타격이다. 독자들에게 한주 1회 연재의 약속을 본의아니게 어기게 될는지도 모른다는것은 여간한 걱정이 아니다.

그러나 내사정도 사정이지만 이곳 주민들과 업자들이겪는 불편은 더욱 심각한것 같다. 모든 청구, 불입등이 거진 우편으로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그 소통의 길이 끊겼으니 그 사회는 동맥폐쇄증에 걸린거나 다름 없다. 문명, 문화가 발달할수록 모든 부면의 연관성은 더욱 깊어져 어느 한 부분이 마비되면 그것의 파급효과는 얼마나 큰가 하는것은 이럴때에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내가 듣기엔 체신관계직원들의 봉급이 타분야외그것에 비하여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올려달라고 공익성도 전혀 무시한 그런처사는 노조간의 시비는 차치하고, 결코 찬성할만한 일이 못된다. 게다가 "우리는 고객 여러분의 불편을 고려한끝에 내근자만파업했지 배달부와같은 외근자는 파업이 아니다."라는 지금과같은 방법은더욱 얄밉다. 내근원이 없으니 우체국 내부에서 정리도안된 우편물을 어떻게 배달하라는 것이냐? 항공기에서부린 우편물을 몽땅 보따리채로 아무집 현관앞에나 갖다 내던지는 식의 배달을 하란말인가? 어차피마비될 바에야 외근원들이 할일도없는 우체국에 출퇴근하는 도로(徒勞)도 덜해 줄겸 내외근 총파업이 차라리 귀엽기나 하겠다.

살다보니 캐나다엔 이런 "눈감고 아웅"식외면도 꽤 있는것 같다. 뒤늦게 이나라에와서 얻어먹는 주제에 배놓아라 감놓아라 무슨말이 많으냐는 소리도 듣게될지 모르나 캐나다엔 그런 습성이 상당히 고질화된것 같기에 이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몇마디 고언을 늘어놓았을따름이다.

그러나 여기 곁들인 스켓취는 다운타운에서 한것인데 어느 개인업체의 파업인듯, 늙은남녀 두사람이 목에 프랙카드를 걸고 회사빌딩앞 노상에서 조용히 쓸쓸하게 하는 스트라이크 였다. 어쩐지 애절한 느낌이들어 사연이야 무엇이든 우선 그들에게 연민의정을 금할길이 없었다.

(계속)

◇조용하고 쓸쓸한 스트라이크

조간판도 발행
토론토·스타지

이제 토론토·스타지를 아침 출근길에서도 볼 수 있다. 캐나다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스타지는 8월24일부터 주5일 조간판을 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스타지 조간은 가게나 무인 신문판매대에서만 구할 수 있고 오후판은 종전 같이 가정배달된다. 스타는 지금까지 시간별로 하루 5판을 인쇄했다.

마틴·굿맨 스타지 사장은 "북미에서 오전신문의 수요가 늘고있다"면서,"우리는 경쟁지 토론토·선지의 영역은 침투치 않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문전문가들은 스타지의 조간발행을 낙관적으로 분석, 보통 새신문은 발행첫해에 450만달러 정도 손실를 보지만 스타의 경우 기존시설을 이용하므로 손실예상액은 100만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망했다.

하루 47만부 발행의 스타는 조간판을 밤12시부터12만5천부발행한다. 작년도에 조간판을추가한에드몬톤·저널은 총 발행부수 18만부중 1만5천부가 조간판이다. 토론토지역은 신문경쟁이 심하므로 낙관만을할수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현재 토론토에는 스타, 선, 그로브·앤드메일등 3개의 신문이 나와 경쟁하고 있다. 그로브·앤드·메일지는 전국지로서 발행부수는 스타보다 훨씬적지만권위지로 통한다. 스타는 토론토·선과 경쟁관계에 놓여있다.

타브로이드·사이즈의 토론토·선은 일요판 외에 가정배달제도가 없다.

스타 조간판은 지역에 따라 아침7시부터 살 수있으며 오후판과 같은 체재, 같은 페이지수를 갖는다.

현재까지 스타지의 제1판은 아침9시30분께 볼 수 있었다.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고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806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광고를 하시기 前

경기가 침체할수록 광고는 더욱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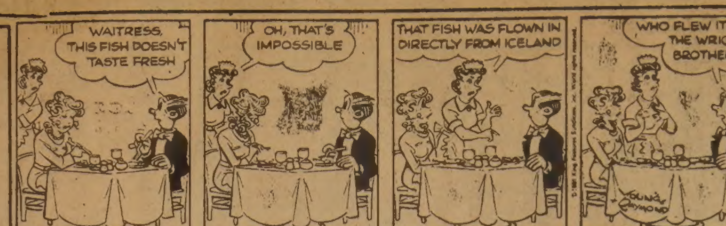
그러나 광고비용은 절대 줄여야 합니다. 때문에 어떠한 광고 매체를 언제선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한국일보 광고부제공
광고문의 : 533-2361

사진의 전당
TECH PHOTO LAB
INDUK RHEE
PRESIDENT
630 BLOOR ST. W.
TOR. ONT.

■ 각종증명사진 ■ 결혼사진
■ 현상, 인화, 확대 ■ 회갑사진
■ 출장환영 ■ 돌사진
☎535-7772
새한칼라현상소

블론디 본社特約·通信漫畫 딘·영作



"아가씨, 이생선 싱싱한 맛이 안나는걸"

"아유, 그럴리가 없어요"

"이 생선은 아이슬란드에서 곧장 공수해온 걸요"

"누가 이걸 공수해 왔어, 라이트 형제가?"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韓·日 古代史 영상화

日 야마노우찌氏 1億円募金

한국의 原作者·감독·俳優구해

『일본이 자랑스런 文化유산으로 생각하는 法隆寺와 東大寺 大佛등은 모두 韓民族이 만들어 준것입니다。이같은 日本속의 韓國문화에 얽힌 大로망을 映像으로 담고 싶습니다』 親韓 실업가인 야마노우찌·나오미 (山內直美) 아까기 (赤城) 컨트리클럽사장은 『일본이 넘어 일본의 古代史를 공부하면서 일본문화의 뿌리가 中國이 아닌, 韓國이라는 점을 깨닫고 큰충격을 받았다』면서 1억円 (약3억원)을 모금, 한일간의 진정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본의 古代史를 창조한 韓民族像을 한편의 영화로 만들것을 제의했다。

한일우호친선을 위해 헌신해왔던 후나다·나까(船田中) 전 중의원 의장의 친 동생인 후지에다·센스께(藤枝泉介) 전방위청장관의 비서였던 야마노우찌 (山內) 사장은 65년 韓日정상화를 계기로 張基榮전부총리와 趙澤元부용가와 교분을 두터이하면서 知韓人士가되어 『넌 한국 사람이냐』고 가까운 친구로부터 핀잔을 맞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

그는 『近代化를 한발 앞서 성취시킨 일본 국민의 對韓偏見을 없애는 방법은 일본의 統一國家의 형성기 였던 5세기에서 奈良시대에 이르는 2백70년 동안의 일본의 문화와 역사가 先進 韓民族에 의해 이룩됐다는 사실을 영상화 해서 일본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한민족의 우수성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일본 史記인 古事記엔 神功皇后의 선조가 신라의 왕족이라고 기술돼있으므로 일본의 天皇家는 한민족의 후예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야마노우찌 (山內) 사장은 『이같은 영화를 만들기위한 한국의 原作者와 영화인을찾고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서기647년 신라의 재상 金春秋가 일본의 大和國창전에 협조한뒤 3國을 통일한 『武烈王이된 얘기며 역시 서기 747년 正行基스님이 東大寺의 大佛을 건조한 逸話며, 구리를 발견, 제조한 金上元에 얽힌 로망이나 李朝시대의 朝鮮通信使등 한 민족의 활약상을 영화화하자고 제의했다。

『奈良시대의 문화유적은 한국사람의 손이 거치지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한 그는 『여기에 필요한자금이 얼마가 들지 잘모르겠으나, 필요한일체의경비를 조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東京=宋孝根특파원】

◇日本속의 韓國文化를 소개할 映畵를 만들기위해 1억円을 모금한 山內直美사장。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전승陶藝協 회원전 내일부터 롯데화랑

제1회 한국전승도예협회 (회장 柳光烈) 회원전이 8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일보社 후원으로 롯데화랑에서 열린다。

한국전승도예협회는 한국 전승도예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참다운 도예문화의 발전을위해 젊은도예인35명이 중심이돼 지난4월 발족된 단체로 이번 회원전은 전승도예의 새진로를 찾기위한 첫 시도다。

초대일시는 8일하오 5시 30분。

◇전승도예협회전에 출품되는 海剛 柳根瀅作 청자향아리。

533 2361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東洋人으로 처음 뉴스프로 제작참여

美 NBC서 활약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崔丁婉양

◇미국TV의 뉴스전쟁터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각광을 받고있는 崔丁婉양(中)이 NBC제작팀과 자리를 같이했다。

美國 TV의 뉴스전쟁은 실제의 전쟁만큼이나 치열하다。지난 3월「TV황제」 월터·크론카이트가 CBS TV의 앵커맨직에서 물러난 이래 CBS NBC ABC등 美國3大TV 네트워크는 뉴스프로의 시청률 화보를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전쟁터에서 한국여인이 맹활약중이어서 화제。NBC TV 세계뉴스 담당 그래픽 디자이너로일하고 있는 崔丁婉양 (33)은 이 분야의 유일한 동양계로 굳건하게 자리를굳혔다。그래픽 디자인은 TV 보도프로그램에서 꼭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그림이나 도표를통해 뉴스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프로의 성패가 그래픽 디자인에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72년 WPIX TV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9년동안 줄곧 이 분야에서 일하고있는 崔양은 그동안 毛澤東사망때의 얼굴 애니메이션, 朴東宣사건때의 돈을 전네는 그림, 이란인질사건, 포드와 카터의 전당대회광경, 폴란드의 경제위기등을 브라운관에 독특한 그림으로 재현, 美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특히 한국의 선거를 보도할때는 태극기로 둘러싸인 투표함을 그려 내어 관심을 자극했고 全斗煥대통령의 컬러사진을 사용, 美國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崔양은 NBC가 뉴스의 우위를내걸고 신설한 저녁 10시뉴스와 9시뉴스, 土·日요일의 「나이틀리의 뉴스」의 그래픽디자인 까지 맡고있어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고。따라서 주말은 생각할수도없고 평일도 10시반에나 퇴근한다고。그의 근황을 본사에 알려 왔다。

『뉴스경쟁이 가열되면서 그래픽 디자이너의 비중이 커졌다』는 崔양은 그래픽 디자인의 임무를 F15전투기와 F16 전투기의 특성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표현해내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그는 또 이전에 크로마키현상때문에 기피해왔던 빨강·초록의 색깔도 최근 「문자발생기」의 도입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됐다며 어떤 인물이나 사진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TV시리즈「보넌저」의 그래픽 디자인으로일약 유명해져 「보넌저崔」란별명까지 얻었다。현재 뉴욕大에 TV그래픽 강사로도 출강하고 있다。【美】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강화,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조 지 실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22달러
☎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2달러
☎ : 532-3637 미스타 게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 742-0800 미스타 차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학생 헬퍼 구함
☎ : 267-4770

도나스 샾에서 주중이나 주말에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카운터 헬퍼
☎ : 284-9325 스카브로지역

집안일 돌보실 독신녀 원함
ST. CLAIR & AVENUE RD. 에 위치
아파트+봉급 줌. 부엌일 없고 영어 필요없음.
CALL ☎ : 481-1355

재봉사 구함 (남·여)
•약간명 •유경험자 •좋은 대우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일본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구합니다
CALL MANAGER(오후3시~6시 연락)
☎ : 977-9519
MASA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입주하셔서 베이비 씨터 하실분 구함
☎ : 763-7450 미세스 김

매매및 양도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김 대 성

스토아 급매 :
주매상 4천8백불, 권리금 8만3천
☎ : 423-9899

그로서리 스토어 급매 : (코너스토어)
주매상 1만2천이상, 가격19만 달러
161 WITHROW AVE. (AT LOGAN) 토론토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이주관계상
매매코자 함, 2 베드룸 달려 있음
☎ : 259-8139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 465-4003

포터블) 세탁기 2년
액설런트 콘디숀 드라이어 6개월사용) 497-9180

빌딩과 비즈네스 매매
다운타운 지역
☎ : 368-5980, 633-0529

그로서리가게및 건물급매 :
2층 벽돌건물이며 경쟁이 없고 장래성이 많은
좋은 위치에 있음.
모게지 1st. 9.5%, 2nd 12.5%
458 CALEDONIA RD. ☎ : 781-7080

FIRE PIT햄버거식당
주매상8천불~만불, 가격27만불, 리스20년 :
렌트170, 현찰3만불 요함 순이익 8천불
1-705-748-9722
미스타 김 또는 미스타 리

성업중인 BAKERY 매매
TOTAL PRICE $130,000 7만달러 다운페이
CASH원함
1603 CLARKSON RD. MISSI. (오후 내방)
7시 까지 미스타 김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 몬트리올 100% 영어지역
BEER, WINE, CIDER, 유럽피안, 캐네디안 그로서리
취급 주매상 $3700, 주6½일 OPEN, 렌트 $375,
12년(리스+옵션), ASKING $29500+스탁
연락처 : 1-514-484-2071(몬트리올)
530-1012(토론토)

신사, 숙녀분들의 매니지먼트 훈련을 곧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알립니다.
실패의 기록이 없는 N. Y. S. E. (New York Stock Exchangc)를 대표한 부동산 기업체에서 $35,000~$75,000+매니지먼트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 기업체에서는 1980년도의 세일즈 쿠오타에서 6개월만에 상당한 증가를 보였읍니다. 여러분중에 소망과 결단력, 투지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 기업체에서 성공 하실수 있읍니다.
매니지먼트 훈련은 프로리다에서 6주동안 있겠읍니다. 모든 비용을 포함, 일년의 봉급은 약 $20,000이 되겠고 부동산 면허증을 꼭 가지신 분에 한합니다.
인터뷰를 원하시는 분은
☎ : 661-1625 H. FRIENDLY CAN-AM ESTATE LTD.
REAL EATATE BROKER에게 이에 대한 취지서(#OAI-505-81)를 부탁하셔서 상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좋은 장소,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E

①관광지역에 위치하고 주유소를 겸용한 버라이어티 & 그로서리 & TAKE-OUT 스토아 매매
2 베드룸 포함, 1.5에이커 크기 ASKING $89,000
②바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매매, 그로스 $440,000이상, 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3베드룸, 아파트+2 베드룸 아파트렌트 월 $215 우편취급에 대한 매상 년 $11,000 ASKING $219,000
③관광지역, 타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스토아 매매
3 베드룸 포함, 그로스 $300,000, 좋은 장비완비 되었음. ASKING $129,500
CALL : (705) 325-6039 IRVEN DEGRAW
WALTER DEAN REAL ESTATE LTD.,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피·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꽃꽂이, 생일,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6PM 목일·월요일 휴업
3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627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8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14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VISA master charge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86-5655 531-5440 이 황 영

식 당

大 生 園
찐빵,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은밥, SEA FOOD.
월~목 11 : 30AM~1 : 00AM, 화 : CLOSE
금, 토 10 : 30AM~2 : 00AM, 일 2 : 00PM~12
☎ : 929-5048, 961-3539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 •소파 •체어 •타일 •하드우드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439-6277 박 (스트리핑 & 왁스)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S
☎ : 245-5122
32A REXDALE BLVD.
(AT ISLINGTON AVE.)
조 혜숙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 961-1057